

II

현릉원과 용주사 중창에 따른 변화

1. 현릉원 천봉과 읍치의 변화

정 해 득(한신대학교 외래교수)

(1) 머리말

조선후기 수원지역은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원소(園所)인 현릉원이 수원부 읍치에 천장(遷葬)되고 읍치가 이전하면서 대도회로의 발전이라는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방행정 중심의 이동뿐만 아니라 장차 '화성성역'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시작이었으며, 1793년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정조대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강화·개성·광주와 함께 4유수부 체제로 수도권이 정비되는 대대적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였다.¹⁾ 그러한 과정에서 옛 수원부의 중심지였던 곳은 현릉원이라는 왕실 묘역이 자리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구역'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 지역의 역사적 변화는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을 비롯한 각종 연대기 자료에서 그 중요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지역의 지지(地誌)를 기록한 각종 『읍지』 등에서 수원 지역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원부 읍치이전 당시에 공식기록으로 작성된 『수원부지령등록(水原府指令謄錄)』²⁾이 있어 읍지편찬에서 누락되었던 여러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릉원등록(顯隆園謄錄)』·『원소정례(園所定例)』·『현릉원사례(顯隆園事例)』 등 현릉원 조성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잘 남아 있고,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에도 여러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건릉의 산릉역사와 천봉 등의 사실을 담고 있는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건릉천봉도감의궤(健陵遷奉都監儀軌)』·『건릉지(健陵誌)』 등이 있어 용·건릉 일대의 변화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

(2) 현릉원 천봉의 전제조건들

1) 사도세자의 묘소-영우원-가 옮겨온 이유

사도세자는 조선 제21대 영조(英祖)의 왕세자이자 제22대 정조(正祖)의 아버지이다.

1) 화성성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자들이 참고된다.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 『국사관논총』 30, 1991 ;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9. 그 외에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1998)에 수원 및 정조관련 논문목록이 실려 있고, 최홍규, 「수원지방 역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한국사연구회·경기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1998)에서 수원지역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있어 참고가 되며, 「정조사상연구」 창간호(1998)가 발간되었다.

2) 奎章閣(奎 1152)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各司謄錄」 5, 京畿道篇으로 영인하였는데 표지명은 '水原下旨抄錄'이다.

사도세자의 휘는 선(愼), 자는 윤관(允寬), 호는 의재(毅齋)이다. 영조의 둘째 아들로서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소생이다. 10세의 나이로 요절한 이복형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뒤를 이어 1736년(영조 12) 2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1743년 영의정인 영풍부원군 홍봉한(1713~1778)의 딸과 가례(嘉禮)를 올렸고, 1749년(영조 25)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하였다. 이때 세자는 경종의 죽음과 신임사화에 대한 문제에서 집권 노론(老論)세력을 불신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노론세력은 세자와 대립하게 되었고, 숙의 문씨, 화완옹주 등의 모략과 참언에 의해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급기야 1762년(영조 38) 5월 나경언이 윤급·홍계희 등의 사주를 받아 세자의 비행 10여 조목을 들어 상소하는 고변(告變)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되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은 후 곧바로 자신이 잘못 처리하였음을 깨닫고 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묘호를 수은묘(垂恩墓)³⁾라 하여 경기도 양주 배봉산(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장례(葬禮)하였다. 여기서 묘소의 격을 원(園)이 아닌 묘(墓)로 한 것에서 사도세자의 처지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낮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결국 묘소에서도 왕세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었다.

1776년 영조가 서거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3월에 수은묘(垂恩廟)를 설치하고, 비로소 수봉관(守奉官)을 두었다. 곧이어 시호를 장헌(莊獻)으로 추후하고, 수은묘를 원(園)으로 격상하여 봉호를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으며 사당을 경모궁이라 개명하였다. 경모궁은 현재의 서울대학교병원 자리에 있었는데, 먼저 있던 사당이 비좁다 하여 넓게 확장한 것이다. 4월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8월에 완공하였다. 세종(世宗) 때 종묘에 북장문(北牆門)을 두었던 것처럼 창경궁 옆에 건물을 마련하고, 궁(宮)의 서쪽과 원(苑)의 동편에다 일침(日瞻)·월근(月觀)·유침(洵瞻)·유근(洵觀) 등의 문을 두고 매일 간소한 행차로 가서 살피곤 했다.

정조는 즉위 후 4월에 처음으로 홍국영에게 명하여 영우원을 봉심하게 하였는데, 놀랍게도 영우원에는 위전(位田)과 향탄산(香炭山)이 없었다. 이 사실은 제향에 필요한 제수비용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고, 제향이 소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정조는 격분하였을 것이다. 정조는 5월에 영우원의 비문을 친히 써서 사도세자의 원침임을 알도록 하였으며, 영우원을 1년에 2차례씩 전배하여 작헌례를 행하였다. 또한 영우원의 관리에 대해 영의정이 도제조(都提調)를 예겸(例兼)하고 제조(提調)는 호조판서·예조판서가 예겸하게 하였다. 또한 낭관(郎官)은 직장(直長)·봉사(奉事)라 칭하고 문관(文官)·음관(蔭官)의 참외관(參外官) 중에서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체모를 중하게 하고 아울러 태묘보다 한 등급을 낮추지만 다른 궁보다 더 높이는 뜻을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우원은 사체(事體)가 능침(陵寢)에 다음 가니, 복호(復戶)하는 결수(結數)를 다

3) 자료에 따라 수은묘(垂恩墓) 혹은 수은묘(垂恩廟)로 나타나는데 묘상(墓上)이란 기록이 있어 수은묘는 묘소와 사당을 함께 일컫는 말로 보인다.

4) 왕과 왕비의 묘는 능이라 하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묘는 원이라 하는데, 그 외 왕자나 공주·옹주 등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왕실의 묘소는 묘라 한다.

른 능침의 예에 의하여 1결(結) 50부(負)로 획정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영우원의 위상을 한층 끌어 올렸다. 그러나 영우원은 국내(局內)가 비좁아 원(園)에 걸맞는 석물을 추설(追設)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조 즉위 초에 행해진 사도세자 현창사업은 정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영우원의 자리가 협소하고 풍수적으로도 못마땅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789년(정조 13) 7월 11일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은 상소를 올려 영우원을 천장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첫째는 띠가 말라죽는 것이고, 둘째는 청룡(靑龍)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는 뒤쪽 낭떠러지의 석축(石築)이 천작(天作)이 아닌 것이라는 이유였다. 즉 풍기(風氣)가 순하지 못하고 토성(土性)이 온전하지 못하고 지세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지극히 애통한데 더구나 뱀 등속이 국내(局內) 가까운 곳에 따리를 틀고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정자각(丁字閣) 기와에까지 그 틈새마다 서려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우원은 당연히 천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조는 영우원이 세자의 원이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 원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풍수상으로도 원침(園寢)의 형국이 열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세월만 끌어온 지 여러 해 되었다. 박명원의 상소를 기다렸다는 듯 정조는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영우원을 지금의 자리로 옮길 것을 결정하였다.

2) 현릉원의 입지조건

박명원의 상소를 계기로 2품 이상 대신들이 동의(同議)하는 절차를 거쳐 예로부터 봉표(封標)해 둔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전국 3대 길지의 하나로 지목되어 온 수원도호부의 주산(主山)인 화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현릉원이 위치한 곳은 반룡농주(盤龍弄珠)·대주향공(對珠向空)의 형국을 지닌 최길지의 명당으로 일찍이 윤강·윤선도 등이 효종의 능침 후보지로 적극 추천하였던 곳이다. 그 당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효종의 서거로 산릉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서 거론된 후보지는 남양(南陽)의 옛 고을 터,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礪), 광주(廣州)의 정난중(鄭蘭宗)·이증(李增), 남양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등의 묘산 및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漢江)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산, 왕십리 해동촌(往十里海東村) 이충작(李忠綽) 묘산 정토 근처와 수원의 호장이 뒷산, 여주 홍제동 등이었다.

그 가운데 수원을 적극 추천한 인물은 윤강과 윤선도였다. 윤강은 수원의 호장(戶長)

집 뒷산의 용혈(龍穴)과 사수(砂水)가 진선진미하여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선도는 2차 간심 후에 올린 보고에서 “도로의 원근을 논하지 않고 산의 우열만 논한다면 홍제동이 의당 제일이고 수원이 그 다음입니다. 수원이 홍제동에는 미치지 못하나, 오히려 건원릉(健元陵)의 여러 산등보다 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풍수가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수원을 적극 추천하였다.

윤선도는 수원 호장가 뒷산에 대한 산론(山論)에서⁵⁾ “눈에 번쩍 뜨여 상격(上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면서 용대풍수(龍大風水)가 영릉(英陵)에 비해 조금 못하지만 진정 천 리를 가도 그러한 곳은 없고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비록 도선(道詵)이나 무학(無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도 다른 말이 없을 곳이라 하였다. 윤선도의 의견에는 윤강·이원진 및 다른 여러 지관들도 전혀 하자를 잡지 않고 입이 마르도록 찬사를 연발하며 모두가 나라를 위해 축하하였다고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후일 정조의 능침이 되는 현재의 건릉 자리인 향교터에 대해서도 윤선도는 용릉자리보다는 못하지만 성취할 만한 자리라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종은 수원이 여주에 비해 가깝고 또 흥해가 없기 때문에 수원에 산릉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능침이 수원으로 정해지면서 가옥 5백여 채를 옮겨야 하고 밭 7백여 결을 묵혀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읍치는 본부의 북쪽 고등촌(高等村)으로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산릉의 여러 도감(都監)의 일도 시작되어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수원에 반대하는 이론(異論)이 일어났다.

윤선도와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던 송시열은 “만약 꼭 길지만 된다면야 관방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도 따질 겨를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없는 곳이 아니라면 왜 가장 길지인 홍제동을 두고 꼭 들쭉가는 수원을 쓰려 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그 지세로 보아 만세 후에도 오환(五患)을 면치 못할 염려도 있는 곳이니,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제동을 걸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송시열이 수원을 반대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수원에 언제나 6천~7천의 병마(兵馬)가 주둔해 있고, 지리적 여건도 삼남의 요충 지대에 해당되므로 만약 변란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싸움터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수백 호의 민가를 일시에 철거하고 분묘들을 옮기고 생업을 깨뜨린다면, 그에 따른 원한과 한탄이 국가의 화기를 해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치유해 가던 시기에 무리하여 큰 고을을 옮기면서까지 산릉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상황은 급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종이 “선대왕이 계셨을 때 미리 산릉을 정해두려 하시면서도 홍제동은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자손 된 도리로서 그곳은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효종 능침의 선정은 난항을 겪었으며 결국에는 건원릉의 서동(西洞)과 불암산(佛巖

5) 『孤山遺稿』 권5, 「議」 '山陵議' 水原戶長家後山 臣謹審此山龍穴砂水盡善盡美, 而無少欠缺, 眞大風水, 誠千里所無, 千載一遇之地也. 表裏周匝吉格則諸術官皆能備陳, 臣不必重複詳達矣. 大槩其龍局亞於英陵龍局. 朱子所謂宗廟血食久遠之計, 實在於此矣. 水原鄉校基, 在此垣局之內, 亦似成就, 而不可與戶長家後山比論矣. 戶長家後山越邊, 又新得一穴, 此亦同在一局之內, 而四獸合法, 比之於戶長家後山, 則高下雖懸, 其亦可用之處也.

山) 밑 화접동(花蝶洞)을 간심하여 건원릉 국내에 초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효종의 능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길지로 검증된 자리를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 영우원을 천봉하기 위해 이미 여러 곳을 간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에 봉표(封標)해 두었던 곳으로 문의(文義) 양성산(兩星山) 해좌(亥坐)의 언덕은 예전부터 좋다고 운운하는 자리이지만 조산(祖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흠이어서 답답하게 막힌 기색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질과 물이며 용세(龍勢)도 결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장단(長湍) 백학산(白鶴山) 아래의 세 곳은 국세(局勢)가 혹은 협소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고 느슨하기도 하다. 광릉(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은 바로 달마동(達摩洞)으로서 문의의 자리와 함께 찬양되는 곳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곳은 바로 절터이니, 신당(神堂)의 앞이나 불사(佛寺)의 뒤나 폐가(廢家) 또는 고묘(古廟)에 묘를 쓰는 것은 옛 사람들이 꺼린 바이다. 용인의 좋다고 운운하는 곳도 역시 그러하다. 이밖에 현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과 후릉(厚陵) 국내의 두 곳, 강릉(康陵) 백호(白虎) 쪽, 가평의 여러 곳들도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오직 수원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라 안에 능이나 원(園)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곳 중에서 세 곳이 가장 길지라는 설이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홍제동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寧陵)이고, 한 곳은 건원릉 오른쪽 등성으로 바로 지금의 원릉(元陵)이고, 나머지 한 곳은 수원읍에 있는 그 곳이다.”⁶⁾



용릉상에서 본 전경

6) 『정조실록』 권27, 13년 7월 을미.

정조는 『영릉의궤(寧陵儀軌)』에 실려 있는 윤강(尹絳)·유계(俞槩)·윤선도(尹善道)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洪汝博)·반호의(潘好義) 등 술사(術士)들의 말, 윤강의 장계(狀啓)와 윤선도의 문집 중에 실려 있는 「산릉의(山陵議)」 및 「여충호사서(與摠護使書)」 등의 논평을 숙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고 하며, 이곳에 산릉을 쓰는 것이야말로 주자(朱子)가 언급한 종묘 혈식 구원(宗廟血食久遠)의 계책이란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소 신료들은 별다른 반대 없이 수원에 공역을 준비하여 불과 3개월 만에 안원전(安園奠)을 거행하였다.

(3) 수원부 읍치가 있었을 때

1) 수원부 읍성과 관아의 상태

현릉원이 옮겨올 곳은 수원부의 읍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부민의 불편과 고충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효종의 능침으로 거론되었을 때도 이 문제는 반대 이유 중의 하나였다. 정조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심의 동향에 유념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길일(吉日)이 머지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며 “인정이 편안한 뒤에야 지리(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하며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자신이 이미 여러 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고,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을 신하로 서유방을 경기관찰사로 임명하는 한편 조심태를 수원부사로 제수하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현릉원 자리의 수원부 관아를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는 일과 주민들의 이주, 현릉원의 원침을 조성하는 일 등 자못 호대(浩大)한 일이었다.

현릉원 천봉 직전의 수원부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리 풍부하지 못하지만 1785년경에 작성된 『수원부읍지』와 『원소정례』에 나타난 수원부 읍치의 각종 시설을 살펴보면, 무너져 내리긴 하였지만 읍성이 있었고, 관아와 부속시설들, 그리고 민가 수백 채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옛 수원부 읍성에 관한 기록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분량은 매우 짧다.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조에 ‘읍토성 둘레가 270보, 안에 우물 2개가 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세종대 거리를 재는 기준척은 포백척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연구되었는데⁷⁾ 이때 1척은 48.9~49.24cm로 추정되고 있으며,⁸⁾ 1보는 보통 주척 6척이었으므로 읍

7) 沈正輔, 『韓國邑城의 研究』, 학연문화사, 1995, 86쪽.

8) 朴星來, 「한국도량형사」, 「한국의 도량형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1997, 177쪽.

성의 둘레는 794m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수원부 읍성이 소규모 토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1729년(영조 5)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동지도』⁹⁾ 『수원부 지도』로 ‘읍성 둘레는 4,035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의 기준척은 영조척(30.59~31.22cm)이며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1,320m 정도의 거리가 된다. 세 번째는 『수원부읍지』¹⁰⁾ 『성지』 읍성조로 옛 수원부 읍성에 대하여 ‘토축이다. 둘레는 3,035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와 정확히 1,000척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두 기록 중 하나의 기록이 오기된 것이다. 『수원부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읍성 둘레는 대략 930m가 된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수원읍성의 둘레는 최대 1,320m이내의 규모이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작성된 『세종실록지리지』와 수원부에서 편찬한 『수원부읍지』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면 수원읍성의 둘레는 800~900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읍성은 이미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해동지도』에 ‘읍성은 지금 모두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었고, 『수원부읍지』에도 ‘읍성은 지금 모두 무너지고 부서졌다.’라고 기록된 것이다. 두 자료 사이에 56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영조대 이전에 이미 수원부읍성은 무너져 있었으며,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원부읍지』에서는 ‘퇴(頽)’자가 더 붙어 읍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읍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영조대 이전으로 읍성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시기는 독성산성의 수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성산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의 승전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 중인 1594년(선조 27) 경기관찰사 유근(柳根)에 의해 한 차례 수축한 적이 있고,¹¹⁾ 전쟁이 끝난 직후인 1601년 사도도체찰사 유성룡(柳成龍)이 “수원의 독성은 성첩이 이미 수축되었고 기계도 대략 갖추어져 온 부민(府民)이 안정된 뜻을 가지고 지금 사력(私力)으로 가옥을 수리하여 들어가 살고자 하는 자가 몹시 많다.”¹²⁾고 한 기록에서 독성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성산성은 사실상 독성산 정상에 위치한 수원부의 외성으로 유사시 수원부민이 들어가 살 수 있었으므로 그 중요성이 커진 반면 수원부읍성은 낮은 구릉에 위치한 토성으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성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릉원이 옮겨 오면서 읍성에 대한 조치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잔존읍성의 토사를 이용하여 보토(補土)작업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으로 읍성이 보호하고 있었을 수원부의 관아 상태는 어떠하였을까. 여러 종류의 수원부 읍지 가운데 현릉원 천봉과 수원부 이읍에 따른 변화가 가장 잘 반영된 항목이 바로 「공해(公廨)」이다. 1785년 쓰여진 『수원부읍지』에는 객사(1645년 중건), 은약헌(동헌 1721년 개건, 1785년 중건), 어묵헌(1671년 영건, 1785년 중건),¹³⁾ 강무당(1671년

9) 『海東地圖』가 완성된 것은 1760년대이지만 각 지방의 지도가 작성된 것은 1729년의 일로 추정되고 있다.

10) 『水原府邑誌』奎, 10743, 1785년 편찬.

11) 『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갑오.

12) 『선조실록』 권74, 29년 4월 계축.

13) 『수원부읍지』 「公廨」, 御牧軒 ‘顯宗大王十二年(1671)元萬里爲府使時營建 軒西鑿池 池上連作一樓 名曰愛蓮堂 肅宗大王丁酉(1717)溫幸時爲寢室 英宗大王庚午(1750)溫幸時 又爲寢室 以御筆書繼普幸三字 揭板于東上房’이라는 기사로 보아 어묵헌은 수원부의 內衙로 사용된 건물로서 숙종과 영조가 온천 행차 시에 이곳에서 묵었다.

영건, 1785년 중건) 등 4개의 주요 건물과, 각 건물과 관계된 제영(題詠)이 붙어 있고 「누대」 및 「창고」 기록에 애련당(愛蓮堂 御牧軒池上 連作一樓), 공극루(拱極樓 府衙 三門樓, 1740년 중건), 사창(司倉 在府下), 군향고(軍餉庫), 군기고(軍器庫) 등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수원부 관아의 규모는 실제 현릉원 공역 때의 기록인 『원소정례』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읍치의 관아 중에서 옛 건물 가운데 58칸을 현릉원의 재실(齎室)로 재사용하였고, 헐어 낸 건물이 내아 14칸, 내아행각 10칸, 비장청 11칸, 비장청행각 7칸, 공수 8칸, 사령방 7칸, 내외삼문 6칸, 전배청 6칸, 누상고 9칸, 공방 4칸, 하인청 3칸, 방영청 12칸, 집사청 행랑(초가) 5칸, 어목헌 삼문 3칸 등 105.5칸으로 나타나 구읍치의 관아 규모는 모두 163.5칸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관아의 규모는 지방 관아 가운데서는 비교적 규모가 컸다.

그리고 수원부의 누정으로는 1785년 『수원부읍지』에는 구수원부 관아의 외삼문으로 사용하였던 공극루와 독성산성의 남문인 진남루 만이 기록되었다. 누정은 연못과 함께 유락의 장소로도 이용되는 시설인데 수원부의 읍치에 1곳만 있었다는 것은 자연경관을 즐기기에는 그리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수원부 관아에 있던 연못은 모두 5곳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수원부읍지』 편찬 당시에 이미 2곳의 연못이 매립되어 연못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연못의 규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옛 수원부관아 연못의 규모

연 못 이 름	길 이	넓 이	깊 이	축조방식	비 고
어목헌지(御牧軒池)	27尺	7尺	半丈	석축(石築)	-
관청전지(官廳前池)	30尺	15尺	-	-	지금은 매워졌다.
사창전지(司倉前池)	17尺	10尺	半丈	토축(土築)	-
문루전지(門樓前池)	20尺	10尺	半丈	토축(土築)	-
객사후지(客舍後池)	31尺	17尺	-	-	지금은 매워졌다.

한편 수원부 관아와 함께 꼭 있었어야 할 시설이 바로 향교이다. 『수원부읍지』에 문묘로 기록된 향교는 ‘읍치의 서쪽 3리’에 있던 것을 1641년에 ‘읍치의 남쪽 2리 독갱산(禿坑山)으로 이건(移建)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독갱산의 위치는 읍지의 「산천」조에 기록되지 않아 위치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릉 인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원소정례』에는 재실의 家舍 87칸 내에 舊舍 60칸, 新建 27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구건물과 신건물을 합산해 본 결과 구건물 58칸, 신건물 29칸으로 나타난다.

2) 주민의 규모와 이주민의 발생

앞서 효종 능의 선정과정에서 수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옮겨야 하는 민가의 규모가 5

백여 채이고, 묵혀야 하는 전결이 7백여 결에 달한다고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현릉원 천장에서도 관아의 이전과 함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다.

수원부 읍치의 호구 자료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785년의 『수원부읍지』와 1789년 현릉원 천봉과정에서 작성된 『수원부지령등록(수원부하지초록)』과 『호구총수』 등이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신읍치로 옮겨간 호구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원부읍지』에서는 수원부의 행정구역을 알 수 있는 「방리」 조항에 부내(府內) 문수당(文殊堂)과 46개의 면이 호구와 함께 기록되었다. 구읍치의 중심지인 부내는 “文殊堂一授, 三授, 五授, 六授”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수별(授別)로 호구 수를 기록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구읍치는 문수당이라 이름한 4개의 수(授)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수(授)는 동리(洞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부내의 문수당 1·3·5·6수의 호수는 885호, 인구는 남자 1,543명, 여자 1,346명으로 합이 2,88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숫자는 수원부 46개 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인구밀도로 볼 때도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된다. 각 수별 호구와 인구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785년 읍지의 부내 문수당 호구 수

구 분	호(戶)	남 자	여 자	계
문수당 1수	266	455	363	818
문수당 3수	234	435	328	763
문수당 5수	170	312	343	655
문수당 6수	215	341	312	653
계	885	1,543	1,346	2,889

『호구총수』에는 부내 문수당이 문수당면으로 바뀌어 670호에 남자 1,088명, 여자 1,034명, 합이 2,1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이읍 후에 215호가 줄고, 남자 455명, 여자 312명, 합이 767명이 줄어들었다. 거처를 옮긴 호구 수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가 구 읍치를 떠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부지령등록』은 이읍 당시의 기록으로서 보다 생생한 자료를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현릉원의 산릉 구역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 이주자의 규모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1789년 7월 17일조에는 봉표처(封標處), 즉 현릉원의 원침으로 사용할 공간에 있던 민호(民戶)로서 이주할 집 주인의 성명 및 집의 칸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원침과 직접 관계된 가호를 기록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한량(閑良) 안윤무(安允武) 집 4칸,

한량 안윤문(安允文) 집 6칸,

양인(良人) 진오장(陳五壯) 집 3칸,
 한량 형만식(邢萬植) 집 3칸,
 한량 이익상(李益相) 집 3칸,
 기패관(旗牌官) 이익제(李翊濟) 집 8칸,
 하리(下吏) 안윤협(安允協) 집 2칸 반,
 방영군관(防營軍官) 안윤집(安允楫) 집 11칸,
 한량 안숙(安塾) 집 19칸,
 속오군(東伍軍)¹⁵⁾ 인잉복(印荊卜) 집 4칸,
 한량 홍윤주(洪允舟) 집 18칸,
 한량 안사흠(安思欽) 집 8칸,
 교련관(敎鍊官) 홍윤우(洪允祐) 집 11칸,
 한량 박세주(朴世柱) 집 5칸,
 한량 안양성(安陽城) 집 6칸,
 한량 형만하(邢萬夏) 집 3칸 반,
 유학(幼學) 김양직(金養直) 집 15칸,
 유학 김약채(金若采) 집 4칸 반,
 양인 황준이(黃俊伊) 집 4칸,
 한량 김검정(金儉丁) 집 6칸.
 모두 20가구 146칸 규모이다.

다음으로 7월 19일 조항에는 이주할 백성 244호를 모두 객사 앞뜰에 소집시켜, '정해진 금액' 및 추가 지급 금액[加給價]을 호주마다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더니, 뜰에 가득 모인 민인이 뛰고 기뻐하며 은택(恩澤)에 대해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조심태는 전후에 있었던 전교(傳敎)를 가지고, 잘 이사하여 생업을 즐거워하며 편안히 살라는 뜻으로 거듭 효유하였으며, 민가 칸수의 본래 금액 외에 더 지급된 금액의 내용[民家間數本價加價數爰]을 보고하였는데, 여기에 기록된 호수는 부내에서 이주대상에 올랐던 숫자로 판단된다. 이주대상 민가(民家)는 244호, 옮길 가사(家舍)는 1,789칸 반이고, 원가(元價) 3,457냥, 가가(加價)¹⁶⁾ 4,112냥, 합전(合錢) 7,569냥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1789년 9월 28일에는 추후에 이사할 민호의 칸수[家舍間數] 및 지급된 금액을 기록하였는데, 민호가 319호, 가사 2,417칸으로 원가(元價) 4,818냥, 가급(加給) 4,394냥이고 합이 9,212냥이었다. 또한 집값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16호이고, 집값을 받은 다음 아직 집을 철거하지 않아 그대로 머무는 자가 119호로 모두 135호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총 이주 대상은 698호에 달하였다. 이 숫자가 모두

15) 선조 27년(1594)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역(役)을 지지 않는 양인과 천민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 군대. 이들은 평상시에 군포를 바치고, 나라에 큰일이나 사변이 있을 때에만 소집됨.

16) 원가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비용, 즉 신음으로 이전할 때 원가의 배 이상을 추가로 지급함.

신읍치로 이전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새로운 읍치와 부근의 안
녕리 일대로 이주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현릉원 조성과 관리 영역

1) 정조의 염원이 서린 현릉원의 모습

현릉원은 7월 하순부터 공역을 시작하여 10월 16일에 완공되었다. 정조에 의해 조성
된 현릉원으로 가는 어도(御道)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었고, 재실은 파
괴된 채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현릉원에 시설된 각종 조형물은 진경시대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능(陵)보다는 격이 낮은 원(園)으로 조
성되었지만, 왕릉에만 쓸 수 있었던 난간석이 없고 호석(虎石)과 양석(羊石) 등의 외호
석수(石獸)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을 뿐 다른 석물들은 광릉(세조의 능)의 예에 따라 사실
상 왕릉에 버금가게 꾸며졌다. 영릉(효종과 인선왕후 능) 천봉 때 폐지하기로 한 병풍석
을 설치하면서도 “수교를 따라 난간석만은 쓰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왕릉처럼 꾸미고
싶었던 정조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봉분(園上)은 동·서·북 3면에 곡장을 둘렀고, 원상(園上)은 모란과 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둘렀다. 난간석이 없기 때문에 방위표시는 병풍석 상단 꽃봉우리 모양의 인석
(引石)에 새겨 넣었다. 원상 바깥으로 호석과 양석을 각각 2기씩 배치하여 원상을 호위
하고 있다. 원상 앞에는 4개의 고석으로 받친 혼유석, 망주석 1쌍, 장명등,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마석(馬石) 1쌍을 배치하였다.



영릉 정자각

현릉원 석물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능상(陵上)에 장릉(인조와 인렬왕후 능) 이후 처음으로 목단·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두르고 있으며, 병풍석에 붙여 와첨석(瓦瞻石)을 놓아 빗물이 빠져 나가도록 하였다. 병풍석을 두른 왕릉의 인석이 대부분 장대석인 데 비해 현릉원은 특이하게 연꽃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장명등이 전기의 팔각 장명등과 숙종·영조 연간의 사각 장명등의 양식을 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면서 구름무늬를 다리에 새기고, 대석에는 꽃을 새겨 넣었다. 이 장명등은 정조(正祖)의 건릉(健陵)과 철종 예릉(哲宗 睿陵) 장명등의 표준(標準)이 되었다. 망주석 역시 대좌에는 운문, 8자 매듭문양, 모란문 등 각종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하였으며, 기둥에는 세호가 좌상우하(左上右下) 방향으로 조각되어 있다.



응릉상 전경



응릉 병풍석과 와첨석



응릉 장명등



응릉 망주석

문인석과 무인석은 다른 왕릉에 비해 크기를 줄였으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신체의 비례감이 매우 뛰어난 걸작으로 정조시대 석물 조각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하고 있는 문인석은 17세기부터 유행된 사대부가의 석물양식을 왕실 능원에서 처음 채택한 것으로 주목된다. 곱상하지만 깨끗한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금관의 이마부분에는 두 마리의 봉황을 조각하여 왕실 묘역에 세워진 문인석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복은 앞의 폐슬을 생략한 채 발등까지 옷자락을 늘어뜨렸으며,後面에는 관대와 연주(聯珠), 일월(日月), 쌍학(雙鶴), 구름과 모란 등의 문양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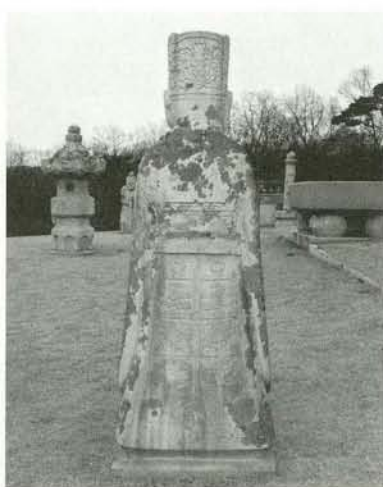
무인석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풍기는 덕장(德將)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다른 왕릉의 무인석보다 규모는 작지만 시립한 자세는 같은 모습이다. 두 손으로 검을 잡아 칼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의복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왼쪽에 칼집을 두르고 있다. 군복의 세부 표현이 매우 뛰어난 걸작으로 그 가치가 높다. 무인석은 다른 원(園)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병풍석과 함께 현릉원이 왕릉급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릉 문인석 전면



용릉 문인석 측면



용릉 문인석 후면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 뒤로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묻는 사각형의 석함인 예감, 비를 안치하는 비각, 제물을 준비하는 수라간, 제향 후 축문 태우는 것을 바라보는 망료위, 판위 등의 부속시설이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두 사람이 걸을 폭의 신도와 어도로 구분하였고, 정자각 그 아랫단 왼편까지 넓게 박석을 깔았다.



용릉 무인석 전면



용릉 무인석 측면



용릉 무인석 후면

정자각 동편의 비각에는 1789년 정조가 직접 짓고 쓴 현릉원비와, 1900년 건립된 용릉비가 나란히 서 있다. 현릉원비는 전면에 '朝鮮國 思悼莊獻世子顯隆園(조선국 사도장헌세자현릉원)'이라 전서로 새겼으며, 후면에 생몰년과 간단한 약력, 존호(尊號) 사실, 천장 기록을 조돈(趙墩; 1716~1790)이 썼다. 용릉비는 전면에 '大韓 莊祖懿皇帝隆陵 獻敬懿皇后祔左(대한 장조의황제용릉 헌경의황후부좌)'라 하였으며, 후면에 장조로 추존하기까지의 간단한 사실만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이때 사도세자는 왕으로 추존되었고 현릉원은 용릉으로 격상되었으나 왕릉의 격에 맞는 석물의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조는 「현릉원행장」에서 “차마 말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슬픔과 통분한 마음을 참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편찬하니 한 자를 쓸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여 생부(生父)에 대한 정을 절절히 표현하였다. 현릉원 표석을 써 내릴 때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용릉 금천교를 건너기 전에 서편으로 곤신지(坤申池)가 있다. 다른 왕릉에서도 연못을 갖추고 있으나 대개 방형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용릉의 연못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도 보기 힘든 원형 연못이다. 게다가 잘 다듬은 치석을 사용하여 진원에 가깝게 만들었다. 곤신지는 설치 기록을 개축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구 수원부 관아에 있던 연못 가운데 1개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소정례』에는 곤신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잡석을 이용하여 못 둘레를 치장하였는데, 1791년 현릉원령이었던 홍취영이 용주사를 건립하고 남은 석재를 가져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하였다. 곤신지는 용릉의 풍수인 반룡농주 형국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연못으로 알려져 있다. 정조의 정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현릉원에는 곤신지 외에도 동구(洞口)에 제1지·제2지·제3지 등이 있었으며, 재실에도 1곳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들은 모두 현릉원의 천봉과 함께 신축하여 조성된 것이지만 현재의 위치는 미상이다. 1899년에 편찬된 『수원군읍지』¹⁷⁾에 이 연못들이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말까지 이들 연못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릉원에 있던 연못의 규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새로 조성된 현릉원 연못의 규모

구 분	둘 레	지 림	깊 이	비 고
곤신지(坤申池)	40丈	12丈	3尺	熟石(다듬은 돌)
동구제1지(洞口第一池)	36丈	11丈	3尺 5寸	잡석(雜石)
제2지(第二池)	33丈	10.5丈	3尺 4寸	잡석(雜石)
제3지(第三池)	39丈	12丈	3尺 4寸	잡석(雜石)



용릉 곤신지

17) 서울대 古915.12-Su 93g.

18)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수원고읍성』 발굴조사 보고서.

한편 현재 용릉의 재실은 유실된 상태이다. 용·건릉 정문의 관리사무소와 매표소로 사용되는 기와집은 건릉의 재실이고, 용릉의 재실은 언제인지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용릉 재실은 용릉의 홍살문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는 어도(御道)를 따라 현재의 경계 철책이 세워진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¹⁸⁾

그리고 현릉원에는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소규모의 하천들을 건너다니기 위해서 여러 곳에 돌다리(石橋)를 설치하였다. 『원소정례』에 의하면 현릉원동구(顯隆園洞口)에 세워졌던 대왕교(大王橋)를 비롯하여 제3용주 아래 돌다리[第三龍珠下石橋], 내청룡 아래 돌

다리[內靑龍下石橋], 홍살문 내외의 잡석을 놓은 다리[紅箭門內·外雜石橋] 등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각 다리의 규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현릉원 석교(石橋)의 규모

구 분	長(길이)	廣(폭)	高(높이)	備 考
대왕교(大王橋)	17尺 3寸	13尺	7尺 5寸	
제3옹주하석교 (第三龍珠下石橋)	11尺	15尺	3尺 8寸	
내청룡하석교 (內靑龍下石橋)	4尺	6尺	3尺 5寸	
홍전문내잡석교 (紅箭門內雜石橋)	2尺 5寸	34尺	3尺	
홍전문의잡석교 (紅箭門外雜石橋)	3尺	36尺	2尺 5寸	대왕교 일부를 옮겨 개수함

용릉 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실에 어진봉안각(御眞奉安閣)을 마련하여 정조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항상 아버지를 모시는 뜻을 붙였기 때문이다. 즉 재실이 정조의 영전을 보관하는 장소의 의미를 겸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1792년 현릉원 원행(園幸)에 맞춰 각신(閣臣)들에게 먼저 가서 1791년 그린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신들이 어진을 남향으로 봉안하였는데 정조는 “(남향도) 참으로 좋지만 동편의 협실(挾室)에 서향(西向)으로 봉안한다면 침양하는 뜻에 있어서 더욱 정례(淸禮)에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며 방향을 고쳐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정조의 효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재실의 어진봉안각인 것이다.

『수원군읍지』²⁰⁾ 「전우(殿宇)」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조가 1789년 현릉원을 본부에 천봉하고 1792년 정조어진을 원소(園所) 어재실(御齋室)에 봉안하여 머물러 우러러 보는 뜻을 붙였는데, 1800년 정조 승하 후에 수원에 영전을 건립하기로 하고 화성행궁의 유여택(維與宅)에 잠시 이안(移安)하였다가 1801년 화령전을 건립하여 주합루에 봉안되었던 대본과 함께 옮겨 봉안하였다고 하였다. 재실의 어진봉안각으로 인해 화령전이 화성행궁 옆에 지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릉원이 화산 아래 구읍치로 천봉됨으로써 수원지역은 원침이 자리 잡은 고장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수원지역은 이읍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원부 관아가 있던 곳은 현릉원으로 꾸며졌고, 현릉원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원릉원 조성 당시의 건물 규모는 여러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1791년 작성된 『수원부읍지』 외에도 1789년~1793년간에 기록된 『원소정례』와, 1829년에 편찬된 『현릉원사례』 등이 있다. 이 3종의 자료에 나타난 현릉원 소재의 건물규모는 각기 다

19) 『정조실록』 권34, 16년 1월 을미.

20) 奎章閣 所藏, 『水原郡邑誌』(奎.10702).

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 5>와 같다.

〈표 5〉 현릉원 소재 각 건물의 규모

구 분 건물명	1791년 『수원부읍지』		『원소정례』			『현릉원사례』
	건물규모	년 대	건물규모	구 관아건물	위치 · 좌향	구 모
정자각	14칸	1791년 신건	(10칸)		축좌미향 (丑坐未向)	10칸
비 각			(2칸)		묘좌유향 (卯坐酉向)	2칸
수릿간			5칸			3칸
수복방			5칸			3칸
제기고	3칸	1791년 신건	3칸			2칸
외재실 (어묵헌, 어재실)	40칸 四十 (十四 誤記?)	구 읍치 어묵헌 영조어서 편액 “계석행 繼昔幸”	15칸 대문 1칸	상방 3칸 청 7칸 월방 1칸 루 1칸 퇴 3칸	계좌정향 (癸坐丁向)	
내재실	재실 13칸	구읍 은약헌 (隱若軒)	재실 12.5칸	상방 3칸 청 4칸 퇴 2.5칸 부엌 1칸	자좌오향 (子坐午向)	재실 9칸 장방 2칸 마구 1칸 대문 1칸
	북행각 7칸	구읍 와호헌 (臥護軒)	북행각 7.5칸			
	서익랑 6칸	구읍 행각(行閣)	서행각 6칸			
	동익랑 4칸	1791년 신건	동행각 4칸			
	공수간 6칸	*	공수 6칸			공수 6칸
전사청	14칸 대문 1칸	구 객사 1791년 신건	14칸	방 6칸 청 2칸 숙설간 1칸 퇴 3칸 월방 2칸		전사청 10칸 대문 1칸 주 1칸 헌 1칸
	제관청 3칸	1791년 신건	제관방 3칸			제관방 2칸
	행각 2칸	1791년 신건	마구 2칸			하간 2칸
향대청	14칸 좌우익랑 5칸	*				14.5칸
하인청			6칸	대문 1칸		
총 계	134 또는 108		103칸			70.5칸

가장 신빙성이 높은 자료는 현릉원 조성 당시의 공식기록인 『원소정례』로 정자각을 제외한 87칸의 가사(家舍) 전체 규모를 각 건물의 용도별로 기록하였고, 재실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건물의 평면배치도가 들어 있다. 현릉원 재실은 구 수원부 관아로 사용하던 동헌과 어묵헌·객사 등의 건물을 이용하여 내재실·외재실·전사청 등 재실의 주요 건물로 사용하고 행각·대문 등 약간의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800년 건릉 조성 당시의 보고서인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에 의하면 현릉원 재실 건물 중 어묵헌 행각(御牧軒行閣) 일부를 건릉의 재실과 가재실(假齋室)로 사용하기 위하여 옮겨 지은 사실이 있다.²¹⁾ 따라서 현릉원 재실 일부가 1800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00년 이후의 건물규모는 『현릉원사례』에 나타난 건물규모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릉원은 1815년 서거한 혜경궁홍씨가 합장되었다. 부군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한 많은 인생을 마친 혜경궁홍씨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 1744년(영조 20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762년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혜빈(惠嬪)'이 되었고, 정조 즉위년에 궁호를 '혜경궁(惠慶宮)'으로 올렸다. 남편의 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 많은 일생을 자서전의 형태로 기록한 『한중록(閑中錄)』을 남겼다. 그런데 혜경궁의 손자인 순조는 할머니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을까! 세도정치가 본격화된 시절이라서 그랬던지 현릉원의 표석에는 혜경궁홍씨의 자리가 없다. 다만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현릉원은 왕릉으로 격상되어 능호를 용릉(隆陵)으로 높였으며, 혜경궁 역시 경의왕후로 추존되어 이때 만들어진 표석에 나란히 그 존호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1899년 기록된 『수원군읍지』에 남아 있다. 「능원」 항목의 현릉원 비각(碑閣) 설명에 “원소 앞 가까이 동쪽에 있으며, 2칸으로 단청을 칠하였다. 비 전면은 전자(篆字)로 ‘조선국 사도장헌세자 현릉원(朝鮮國思悼莊獻世子顯隆園)’이라 했고, 또 비 전면에는 전자로 ‘조선 헌경혜빈 부좌(朝鮮獻敬惠嬪附左)’라고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즉 혜경궁홍씨의 표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도세자의 추숭으로 새로운 비석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혜경궁홍씨의 표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용릉 표석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2) 현릉원과 관리영역 - 화소와 금양계

능원(陵園)은 사표(四標)로 사방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를 능역(陵域) 또는 화소(火巢)라고 한다. 화소 안에서는 민간의 무덤을 쓸 수 없으며 경작이나 나무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현재의 용·건릉의 보호구역은 705,653㎡(약 213,500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과거의 능역은 이보다 훨씬 넓었다. 화소는 각 능마다 지형적 여건에 따라 그 범위가 다

21) 『健陵山陵都監儀軌』下, 「造成所儀軌」, “顯隆園齋室 以陵所太過 今既移定於御牧軒添建行閣 而舊齋室撤毀之材 或有不合於行閣者是遣 如分閣障子等屬 則本園 並毋移用之處云 就其中擇其可合於陵所齋室及假齋室等處者 移來取用何如 手決毋論材石與窓戶障子 不合於彼 而合於此者 並爲往復取用”(영인본 61쪽, 서울大學校 奎章閣).

22) 세람평 : 구 수원부 읍치에서 독성산성 방향으로 황구지천을 건너는 대로(大路)상에 놓인 세람교가 있어 그 주위의 벌판을 세람평이라 하였다. 현재 한신대학교 기숙사 건물 앞쪽에 세람교 터가 남아 있다.

23) 성황산(城隍山) : 현릉원 동쪽에 있는 산으로 좌청룡에 해당됨.

24) 『水原府指令謄錄』 庚戌 12月 20日, “洞口前經界段 自安寧面禿旨村後垓端 向南逶迤 由細藍坪過石串隅 至下山垓端 而步數爲三千二百九十六步 是自白遭 主山後經界段 自城隍山後垓端 向西而下從草峰前 至古西門磚石峴 而步數爲二千六百四十一步 是自平所 … 一萬一千四百三十三步.”

25) 『健陵誌』 火巢經界. 東自安寧禿旨村 北後城隍山 一千九百五十步. 自城隍山後 至培養峙標石 九百九十步 自培養峙標石 至草山 五百五十步. 北自草山西南 至龍伏西池村 七百五十步. 自西池村 至臥牛川 六百步 自臥牛川 至洪範山入首岡脊標石 一千二百步. 西自洪範山入首標石 南至溪洞 八百五十步 自溪洞 至梨堂巖 一千七百步. 自梨堂巖 至鳳鳥峰下貞松村 一千步 自貞松村 至上南山 二千一百步. 南自上南山 東至下山標石 八百五十步 自下山標石 至老山 一千一百五十步. 自老山 至細藍橋標石 八百五十步 自細藍橋 還至安寧禿旨村 四百九十八步. 以上一萬五千三十八步.

르게 설정되었는데 가장 넓었던 것은 광릉(光陵)으로 주위가 90리에 이를 정도였다. 현릉원의 화소(火巢)는 광릉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거의 50리에 가까운 넓은 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갔다.

1790년 12월 20일 조항에 원소 화소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데 당초에 정한 원소화소(園所火巢)의 경계는 결과적으로 민폐만 끼치고 있어 다시 개정하여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당초에 정한 경계는 동구(洞口) 앞 경계는 안녕면(安寧面) 독지촌(禿旨村) 뒤의 끝에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세람평(細藍坪)²²⁾을 경유하여 돌곶이(石串) 모퉁이를 지나 아래로 남산(南山) 끝까지 보수(步數)로 3,296보이고, 주산(主山) 뒤 경계는 성황산(城隍山)²³⁾ 뒤 끝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내려가 초봉(草峰)을 따라 앞으로 고서문(古西門) 전석현(磚石峴)까지 보수가 2,641보이었다.

이때 다시 약 한 달간에 걸쳐 수원부사 조심태가 원령(園令) 홍취영(洪就榮)과 차사원 진위현령(差使員振威縣令) 조윤식(曹允植)을 대동하고 경계를 정하였는데, 그 지세(地勢)가 좁고 기울며 경계(經界)가 구불구불한 것은 가지런히 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에 굴착한 해자와 새로 정한 경계를 물론하고 통틀어 계산하여 다시 척량(尺量)을 했더니, 화소의 둘레·보수(步數)가 합하여 11,413보였다.²⁴⁾

그리고 이때의 경계는 1821년 건릉의 천장을 계기로 홍범산 쪽으로 화소를 확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릉지』에 기록된 경계는 이보다 더욱 늘어났기 때문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쪽은 안녕리 독지촌으로부터 북쪽 성황산 뒤까지 1,950보, 성황산 뒤부터 배양치 표석까지 990보, 배양치 표석부터 초산까지 550보이다. 북쪽은 초산의 서남쪽으로 부터 용복 서지촌까지 750보, 서지촌부터 와우천까지 600보, 와우천부터 홍범산 들머리의 산등성이 표석까지 1,200보이다. 서쪽은 홍범산 들머리의 산등성이 표석부터 남쪽으로 계동까지 850보, 계동부터 금당암 아래까지 1,700보, 금당암부터 봉조봉 아래 정송촌까지 1,000보, 정송촌부터 상남산까지 2,100보이다. 남쪽은 상남산부터 동쪽으로 하남산 표석까지 850보, 하남산 표석부터 노산까지 1,150보, 노산부터 세람교 표석까지 850보, 세람교부터 돌아서 안녕 독지촌까지 498보이다. 이상 15,038보이다.”²⁵⁾

이 둘레는 『수원부지령등록(水原府指令謄錄)』에 기록된 것보다 3,625보가 늘어난 것으로 정조의 능침인 건릉이 현릉원 동쪽 제2강에 초장되었다가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화소를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화성(華城)의 둘레가 4,600여 보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넘는다. 둘레가 약 18km가 넘는 구역이 화소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화소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석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은 배양치(培養峙), 서쪽은

홍범산(洪範山) 들머리, 서남쪽은 하남산(下南山), 동남쪽은 세람교(細藍橋)로 확인된다. 정방위에서 벗어난 것은 지형적 여건상 동쪽에 황구지천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표석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화소와는 별도로 용·건릉 주변에는 드넓은 금양지(禁養地)가 설정되었다. 금양지는 지금의 그린벨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능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들의 개간이나, 산림의 벌채, 가축의 방목 등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건릉지』 「능원침내금양전도(陵園寢內禁養全圖)」의 기록에 보면, 홍범산과 서봉산(棲鳳山; 1796년 間烽 설치), 원소(園所)의 배치(培峙)·응봉(鷹峰)·필봉(筆峰)·반월봉(半月峰) 등이 외화소(外火巢)로 둘러 있었다.²⁶⁾ 또한 1821년 건릉 천봉 때에 고금산(古今山)·사랑산(沙浪山)이 능소의 외화소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현릉원과 건릉의 외금양지지(外禁養之地)로 양산 서봉(陽山西峰), 독성산성·노적봉(露積峰)·하남산·상남산(上南山), 봉조봉(鳳鳥峰)·태봉(台峰) 등이 포함되었다.²⁷⁾ 사실상 현릉원에서 바라보이는 산천이 모두 금양지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화소와 금양계의 설정은 첫째 사실상 능원을 보호하고, 둘째로는 풍수상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조는 현릉원 주변에 대규모 식목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해마다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묘목을 심고 종자를 파종하였던 것이다. 1790년 2월 2일부터 대규모의 식목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정조는 수원부와 속읍 수령이 군사를 지휘하여 식목을 한 자리에 표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식목 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숫자와 말라죽은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경계하였다.²⁸⁾ 3월 24일에는 현릉원에 식목감관(植木監官)을 두어 식목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1790년 9월 23일에는 가을철 식목 때는 소나무를 위주로 식목할 것과 식목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굳이 식목만 할 것이 아니라 종자를 파종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식목사업을 현릉원 주변의 기세를 보완하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제방을 튼튼히 하도록 조치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²⁹⁾

26) 『鄕野圖勝錄』 장서각2-2383.

27) 『健陵誌』 「陵園寢內禁養全圖」 附火巢坎字周回步數 ‘…此外如 陵所之棲鳳峙峙向方鷹峰 園所之筆峰半月諸峰 皆是外火巢 故不入圖中. 古今沙浪二山 亦陵所之外火巢 辛巳以陵所定 而既在主山後至近之地 且是洪範來脉 故入於圖中. 禿城陽山西峰 亦園所外禁養之地 而與園所一線相對 故亦入圖中.’

28) 「수원부지령등록」 경술 2월 2일. 「園所植木 工役已始…各邑植木 則各其地方官 領來看檢 畢植後邑名標識 以爲憑考之地 而來春解凍後 某邑幾株完 幾株枯 別錄修成冊…若有一毫 如前泛忽之弊 道伯守令 焉道重勘…令以錢一千兩內下 亦令園官差員分管 一以爲植木別質之數 一以爲役夫官人勤勞最多者賞給之用事.”

29) 「수원부지령등록」 경술 9월 23일. 「園官及差員 混同舉行 令出多門 今番則各定界限 昨今年植木 八邑所植 皆是雜木 今番段 以松木爲主…宜植松檜 助其氣勢.”

(5) 현릉원령의 원역과 관리(管理)

1) 현릉원령과 건릉참봉, 그리고 원속들이 하는 일

흔히 왕실의 능원묘에는 참봉을 두어 관리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각 능의 사정에 따라 종5품의령이나 종7품의 직장, 종8품의 봉사와 함께 종9품의 참봉이 함께 근무하

는 2인 1조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현릉원은 능보다 격이 낮은 원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령이 2명 배치되었다. 이 역시 정조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건릉이 현릉원 옆으로 정해진 뒤에는 건릉과 현릉원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는데, 일시적이거나 현릉원은 령이 되고 건릉은 참봉이 되었다가 뒤에 건릉에도 령이 배치되었다. 순조 역시 정조가 현릉원에 베풀었던 뜻을 고치지 않고 그 일을 이어받는 계지술사(繼志述事)의 자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릉원령과 참봉은 입직관원으로서 15일 간격으로 재실에서 임무를 교대하면서 항상 능원을 관리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삭망 분향례를 지내고 5일 간격으로 봉심을 하였으며, 5대 명절의 제향을 준비하는 임무가 있었다. 또한 과거에 응시한다거나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예조에 정장(呈狀)을 내고 영을 기다려야 했는데, 예조에서는 임시로 관원을 차출하여 내려 보내야 했다. 그리고 제향을 지낼 때는 나가 있는 관원이 향축을 받들어 와서 수원유수에게 향을 전달해야 했다.

왕이 행행하여 친제를 행할 경우에는 제물을 미리 진설하고 양 관원이 나아가 참례하였다. 곧이어 재실 동구에서 왕을 지영(祇迎)한 후 현릉원령이 먼저 홍살문안에서 무릎 꿇고 향축을 받아 정자각 향상 앞에 봉안하여 놓고 대령하였다. 대신(大臣)과 도신(道臣)·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명을 받들어 봉심할 때는 입직관원이 거안(擧案)을 올리고 공복을 갖추어 입고 뒤를 따라야 했다. 혹시 원상(園上)이나 재실 전내에 탈이 있으면 유수영에 보고하는데 큰 것은 유수영에서 장문(狀聞)하여 수개하고, 작은 것은 관천고(筓千庫)에서 형편에 따라 수개하였다.³⁰⁾ 그 외 보토(補土)와 식목(植木) 등의 일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현릉원에 소속된 식목감관, 서원(書員), 고지기, 수호군, 산지기 등의 원속들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봄과 여름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원상의 제초작업을 진행하는데 삭망으로 수호군, 안산 산지기가 합번하는 날 제거하고 입직산지기 또한 수시로 김매기를 하였다. 겨울에 눈이 내릴 때는 원근의 군정들이 각기 도구를 지참하고 대기하였다가 눈이 그친 즉시 치워야 했는데, 탈이 났다고 핑계 대는 일이 있으면 각별히 엄하게 다루었다. 춘추로 거행하는 식목행사와 벌레잡기는 시작 전에 유수영에 보고하고, 끝난 후에 유수영과 예조에 보고하였으며, 수호군과 안산 산지기 각 1명씩 매일 순찰을 돌며 초목(樵牧; 딸나무를 하고 짐승을 방목하는 일)을 금지시켰다. 밤에는 매일같이 수호군 2명씩 교대로 원상에서 수직하였고, 다음날 아침 1명이 재소로 내려와서 불을 붙이고 청소를 하였다.

정조는 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답을 나누어 주고 세금없이 갈아먹게 하였다. 원속과 지급한 전답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30) 『현릉원사례』 「入直官員舉行」.

〈표 6〉 현릉원 원숙에게 지급한 전답

원 속	지 급 전 답
식목감관 1명, 서원 1명, 고지기 1명	각기 밭 45두락, 논 10두락
서울에서 내려 온 수호군 1명	밭 45두락, 논 18두락
수복 4명	각기 밭 56두 2승 5홉락, 논 25두락
수청 2명, 내산지기 4명, 소임 수호군 2명	각기 밭 40두락, 논 15두락
수호군 41명	각기 밭 30두락, 논 15두락
외산지기 소임 3명	각기 밭 20두락
장번 2명	각기 밭 15두락

이 밖에 소임이 없었던 외산지기 70명도 도지는 중에서 각기 7두락씩 분급해 주고 갈아먹게 하였으며, 도지조는 각기 그 해의 등급에 따라 반감하여 봉상토록 해서 오직 현릉원의 공역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면 전답을 분급해준 원역은 모두 132명에 이른다. 이들이 현릉원령과 참봉의 지휘아래 화소와 외금양계에 이르는 지역을 계속 간섭하며,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주민들이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야산을 경작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받았던 전답은 수원부의 백성들이 경작하던 농토로서 정조가 사들였던 도지는 가운데에서 지급된 것이다. 정조는 화소 안의 전답을 사들여 현릉원 주변의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소 내에 계속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경작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사들인 밭 86결 83부 5속과 논 86결 34부 5속³¹⁾은 모두 면세지로 삼았고 도지만 물게 하였다.

도지는 논을 8등급으로 나누어 상의 중등은 두락당 벼 12두, 상의 하등은 두락당 벼 11두, 중의 상등은 두락당 벼 10두, 중의 중등은 두락당 벼 9두, 중의 하등은 두락당 벼 8두, 하의 상등은 두락당 벼 7두, 하의 중등은 두락당 벼 5두, 하의 하등은 두락당 벼 4두이다. 밭은 7등급으로 나누어 상의 하등은 두락당 콩 2두 5승, 중의 상등은 두락당 콩 2두 2승, 중의 중등은 두락당 콩 2두, 중의 하등은 두락당 콩 1두 7승, 하의 상등은 두락당 콩 1두 5승, 하의 중등은 두락당 콩 1두 2승, 하의 하등은 두락당 콩 1두씩 봉상하게 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다소에 따라 분급하여 주고 갈아먹게 하였으며 식례대로 납세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현릉원 천봉에 따른 수원부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화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한편 1798년 2월 19일 정조는 현릉원의 외금양처에 금표석(禁標石)을 세우게 하였다. 현릉원의 금양지는 대체로 화소의 범위보다 넓었다. 현릉원의 외금양지(外禁養地)는 양산 서봉, 독성산성·노적봉·하남산·상남산·봉조봉·태봉 등이 포함되어 금양전도

31) 1결을 약 3,000평 정도로 추산하면 논과 밭을 합하여 대략 50만 평 정도이다.

에 그려져 있다.³²⁾ 그런데 현릉원 천봉 당시부터 태봉산까지 외금양지에 포함되었지만 그 경계를 알리는 표지물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금양지는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는 선조의 분묘도 있어 불가피하게 경계를 침범하기도 하였으며, 봉금한 곳의 경계가 일정하지 않아 나무를 베어내는 등의 각종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태봉산 외금양계 근처에 살던 신광린(申光隣)이란 자가 수원부에 정소(呈訴)하여 시정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각 민호(民戶)를 상중하로 나누어 계(契)를 결성하여 자치적으로 봉금(封禁)하도록 하는데 봉금을 범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나무를 베는 등 중한 경우는 관에 고하여 징치(懲治)하고, 가벼운 경우는 계 규약에 따라 벌을 주자는 것이었다.³³⁾ 이 제안은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도 외금양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수원부에서는 ‘外禁養界(외금양계)’ 표석을 세워 마을 사람들이 그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금양계 표석은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표지물로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 부근에 세워졌다.³⁴⁾ 표석의 형태는 화성성역 당시에 세워진 표석들과 같은 형태이며, 외금양지로 설정된 다른 산에도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태봉산 외에는 아직 조사보고된 바 없다. 아무튼 외금양계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금양지구를 침범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 표석까지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2) 火巢에는 培養峙(北) · 洪範山入首(서) · 下南山(서남) · 細藍橋(동남) 등 4군데에 표석을 설치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발견 보고되지 않고 있다. 『皇朝畿甸圖勝錄』 장서각2-2383.

33) 『壯勇營故事』 8책, 戊午二月十九日.

34)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1, 1999. 소재지의 행정구역은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이다.

35) 『원행일기정리외역』 권 3, 移文 乙卯 閏二月初一日.

2) 필로와 석교(石橋)

필로는 국왕의 행차 때에 이용하는 길이다. 여기서는 정조의 현릉원 행차에 사용된 길을 말한다. 정조는 1795년 2월 을묘원행에 앞서 자신과 어머니 혜경궁홍씨가 지나갈 도로의 각 지점마다 지명을 바꾸고 또 새로운 지명을 빗돌에 새겨넣게 하였다.³⁵⁾ 즉 경기감영에 명하여 소사현(素沙峴)은 만안현(萬安峴)으로, 사근천(沙斤川)은 사근평(沙斤坪)으로, 일용현(一用峴)은 일용현(日用峴)으로, 사근현(沙斤峴)은 미륵현(彌勒峴)으로 고치게 하고, 길가에 비석을 세워 이 지명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각 읍지에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수원부 경내에도 소황교(小黃橋)는 황교(黃橋)로, 매산교(梅山橋)는 매교(梅橋)로, 삼거리점막(三巨里店幕)은 상류천점막(上柳川店幕)으로, 독봉(獨峯)은 웅봉(甕峯)으로, 대황교(大黃橋)는 대황교(大皇橋)로, 작현(鵲峴)은 유첨현(道瞻峴)으로, 사성교(土成橋)는 유근교(道觀橋)로, 방축수(防築戢)는 만년제(萬年堤)로 고치고 역시 새로운 지명을 돌에 새겨 길가에 세우도록 하였으며, 수원부지(水原府誌)에도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바뀌게 된 지명은 특히 왕과 관련되거나 현릉원을 염두에 둔 용어를 사용한 특

징이 있다. 즉 만안(萬安)·일용(日用)·대황(大皇)·만년(萬年) 등 최고 권력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유첨(道瞻)·유근(道觀) 등 화산에 자리한 현릉원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곳의 지명을 바꾼 것이다. 한양에서 출발해 화산에 이르는 자신의 거동길이 어버이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지명에까지 나타낸 것이다.

정조의 지시는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오랫동안 사용되던 지명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 지명으로 불러야 할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성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1796년 1월 원행 때에는 교구정(交龜亭)을 영화정(迎華亭)으로 개명하고, 그 부근의 들판을 관길야(觀吉野)와 대유평(大有坪)으로, 새로 만든 저수지를 만석거(萬石渠)로 명명³⁶⁾하는 등 정조의 수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796년 2월 2일에는 우선 지지현·지지대·괴목정·진목정교·만석거·대유평·관길야·영화정·매교·상류천·하류천·황교·옹봉·대황교·유첨현·유근교·만년제·안녕리 등 18곳의 지명을 확정하여 표석을 세울 것이라 보고하였다.³⁷⁾ 이 보고는 정조에 의해 채택되었던 듯 시행에 옮겨져 5월 10일 표석을 세웠다고 보고하였다.³⁸⁾ 이때 또 다른 보고에서는 진목정교를 여의교로 개명하게 되었고, 만석거, 대유평, 관길야, 영화정의 지명순서가 맞지 않아 노정에 맞게 만석거, 영화정, 대유평, 관길야로 순서를 바로 잡아 보고하였다.

그런데 18곳의 확정된 지명 가운데 지지대와 영화정 등 2곳에는 표석을 세우지 않고, 모두 16곳에 표석이 세워졌다.³⁹⁾ 『화성성역의궤』 실입(實入)에 따르면 지지현(遲遲峴)·괴목정(槐木亭)·여의교(如意橋)·만석거·대유평, 관길야·매교·상류천(上柳川)·하류천·옹봉·소황교·대황교·안녕리·유첨현·유근교·만년제 등 16개의 표석을 세우고, 그에 따른 비용이 재료비와 공임을 합쳐 모두 251냥 2전 2푼이 소요되어 개당 약 15냥 7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였다. 지지대와 영화정에 표석을 세우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별도의 표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개의 표석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표석은 괴목정교·상류천·하류천·안녕리·만년제 등 5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류천·하류천은 제 위치를 잃어버리고 여러 차례 옮긴 끝에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고, 사유지로 변한 만년제는 저수지를 메우는 과정에서 표석을 화성시청으로 옮겨 놓았다. 나머지 11개의 표석은 수원비행장의 건설, 1번 국도 확장, 수원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흔적없이 사라졌다. 한편 경기감영에 명하여 세워진 표석들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현재 남아있지 않다.

36) 『정조실록』 권44, 20년 1월 20일.

37) 『화성성역의궤』 부편2, 來關, 丙辰 二月初二日.

38) 『화성성역의궤』 부편2, 移文, 丙辰 五月初十日.

39) 『화성성역의궤』 권6, 實入3 표석.



안녕리 표석



원행로 - 작현의 모습

남아있는 표석은 활달한 필체(筆體)의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서체로 정조시대의 기상이 느껴진다. 필로의 표석은 수원부에서 주관하여 세운 표석이기에 당시 수원부사이자 화성성역의 감동당상이었던 조심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조심태는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부 이읍 당시에 鎭南樓(진남루; 신평루로 바뀜)의 현판을 썼고, 특히 迎華亭(영화정)의 현판글씨를 직접 써서 달았기 때문이다. 필로의 각 지점에는 표석이 세워진 곳 외에는 장승⁴⁰⁾을 세워 이정표로 삼았다. 『화성지』에는 용봉과 유침현에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안녕리 일대의 필로는 작현(까치고개)과 안녕리 표석, 유침현(漣瞻峴), 유근교(漣觀橋), 만년제(萬年堤) 동구로 이어지는 길이다. 용주사와 용건릉을 잇는 2차선 도로를 '원행로'라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정조의 원행로는 이 길과 84번 지방도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안녕리 표석에서 마을 언덕을 지나 화산저수지로 곧장 가는 길을 따라 가면 저수지 아래의 유근교(옛 지명은 '사성이 다리'인데 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를 지나 다시 언덕을 나지막한 언덕을 가로지르면 만년제 동구를 만나 현릉원 재실로 들어가게 된다. 용주사와 용건릉 사이의 도로는 1907년에 있었던 순종의 용건릉 행차와 권업모범장 순시를 위해 자동차 도로로 만들었던 신작로(新作路)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2003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화성 태안3지구 내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건릉 초장지에 있었던 재실의 터가 발굴되었는데 이 길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재실 앞쪽으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원행로는 좀더 신중한 조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40) 『화성지』 「필로」. 장승이 세워진 곳은 일용리·기하동·만화현·건장동·용봉·유침현·능원소동구 7곳이다.

(6) 맺음말

옛 수원부의 중심지였던 현릉원 지역은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로 조성된 현릉원에 정조대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정도의 빼어난 석물이 만들어지고, 현릉원의 원찰로 건립된 용주사에도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조성되었다. 새로운 자리로 모신 사도세자의 원력에 의해서 아들 순조를 잉태한 것으로 믿은 정조는 이곳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급기야 정조는 1793년 수원을 유수영으로 승격시키고, 곧이어 1794년에는 원침과 화성 행궁을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화성성역을 시작하였다. 물론 화성성역이 화성의 축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자족적인 대도회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등이 함께 진행된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원지역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현릉원 참배를 위한 도로의 정비와 교량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영화역이 설치되어 수원지역은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편리한 교통은 물화가 집중되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팔달산, 수원천 양변, 매향동, 관길야, 영화정, 용연, 현릉원 화소 일대에는 대규모 식목사업이 전개되고, 화성 내외의 저수지 및 연못 주변에는 방화수류정·영화정 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정자가 건립되었으며, 수원춘팔경·추팔경으로 불리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 수원은 활기 넘치는 신도시로 변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현릉원의 화소 내 지역은 정조의 세심한 배려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순조~철종대는 1800년 정조의 서거로 말미암아 정조가 추구했던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사업'이라는 화성성역의 목적이 퇴색되어 수원지역의 발전방향이 변화되어 갔다. 정조는 1804년 세자에게 양위하고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함께 화성행궁에 내려와 노후를 보내고자 구상하였는데,⁴¹⁾ 1800년 정조의 서거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현릉원에 매년 행차하면서 수원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던 정조는 자신의 뜻대로 현릉원 우측에 안장되었고, 1821년 효의왕후 김씨의 서거로 인해 현재의 자리로 옮겨 합장되었다. 1802년 장용영 혁파로 수원유수부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저하됨으로써 수원부의 위상이 격하되어 도시적 성장이 정조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릉원도 정조대에 비해 그 규모와 격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정조의 꿈이 후손들에 의해 변모되었음을 의미한다. 계속 변모되어가는 현릉원 일대의 현재 모습은 정조의 꿈과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41) 유봉학, 앞의 저서 137 ~139쪽.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弘齋全書』

『顯隆園謄錄』

『園所定例』

『顯隆園事例』

『華城城役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水原府指令謄錄』

『水原府邑誌』

『水原郡邑誌』

『華城誌』

『健陵山陵都監儀軌』

『健陵遷奉都監儀軌』

『健陵誌』

정옥자, 『朝鮮後期 文化運動史』, 일조각, 1988.

沈正輔, 『韓國邑城의 研究』, 학연문화사, 1995.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 일조각, 1996.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최완수 외, 『진경시대』, 돌베개, 1998.

한신대학교박물관, 『수원고읍성 발굴조사보고서』, 1999.

정해득, 『정조대 수원이읍과 이후의 변화양상』, 『경기사학』 3, 1999.

2. 만년제 축조와 경제적 변화

왕 헌 중(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새로운 화성 건설과 인구의 변화

17세기 후반 실학자 반계 유형원은 수원의 신읍치를 구상하는 글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북쪽 들 가운데 흐르는 내의 지세를 보고 생각하니, 지금의 읍치도 좋기는 하다. 그러나 북쪽 들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하여 농경지가 깊고 넓으며, 규모가 매우 크다. 성을 쌓아 읍치로 삼으면, 참으로 대번진(大藩鎭)이 될 수 있는 기상이다. 그 땅 내외에 가히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1794년 1월 정조는 신도시의 모습을 갖춘 화성 읍터 일대를 돌아보면서 “이 땅은 본디 텅 빈 큰 들로서 인가가 겨우 5~6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1천여 호의 민호가 즐비한 도회가 될 것이나, 지리의 흥왕은 그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 정말 예언대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1794년 봄부터 시작하여 2년여의 공사를 거쳐 1796년 가을 화성(華城)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조가 즉위한 지 20주년이 되던 해였다. 만 호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화성 지역에는 그로부터 다시 2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25만 호가 넘는 거대한 도회지로 변창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화성의 건설로 읍치의 중심이 옮겨가기 전 본래의 화성은 어떤 상태였을까. 여기서는 우선 당시 본래 화성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는 오늘날 화성시와 관련된 수원과 남양 지역의 조선후기 인구를 정리한 것이다.²⁾

1) 『정조실록』 권39, 18년 1월 15일.

2) 참고한 자료는 『여지도서』,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1976), 『민적통계표』(이현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추이 1은 『호구총수』와 『대동지지』를 비교한 것이며, 추이 2는 『호구총수』와 『민적통계표』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조선 후기 화산동 지역 인구 변화

지 역	구 분	여지도서 (1759)	호구총수 (1789)	대동지지 (1864)	민적통계표 (1910)	추이 1 (1789→1864)	추이 2 (1789→1910)
수 원	호수	14,693	15,121	15,888	15,352	5.1	1.5
	인구	55,680	57,660	59,021	74,661	2.3	29.5
남 양	호수	—	6,315	6,300	9,989	-0.2	58.2
	인구	—	23,418	23,255	48,881	-0.7	108.7
장주면	호수	—	275	—	317	—	15.3
	인구	—	1,051	—	1,623	—	54.4
태림면	호수	—	352	—	421	—	19.6
	인구	—	1,525	—	2,187	—	43.4
용복면	호수	—	221	—	284	—	28.5
	인구	—	676	—	1,390	—	105.6
안녕면	호수	—	451	—	553	—	22.6
	인구	—	1,387	—	2,594	—	87.0

18세기 중반 수원의 호구는 1만 4천여 호였다. 인구는 약 5만여 명을 넘고 있었고, 남양은 6,300호를 조금 넘었으며, 인구도 2만 3천여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18세기 말 정조 연간에도 그리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789년 『호구총수(戶口總數)』의 기록에 의하면, 수원의 호구는 1만 5천 호를 넘어섰지만, 인구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더욱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조세·군역·요역과 같은 국역의 부담과 과도한 세금 부과를 기피하기 위해 원호(元戶)의 범위 내에서 인구조사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특히 남성의 인구는 실제보다 줄여서 보고하였다. 이런 추세는 19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김정호가 제작했다고 하는 『대동지지(大東地誌)』에 의하면, 70여 년 전의 『호구총수』 통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의 호구는 1만 5천 8백여 호를 넘어섰고, 인구도 6만에 가깝게 증가했다. 다만 남양의 인구는 거의 비슷하게 변동이 없었다.

이런 추세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910년에 조사 보고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수원 지역의 인구는 호수에서는 별 변동이 없었지만, 인구수는 7만 명을 넘어서 이전에 비해 30% 정도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남녀 인구의 비율도 크게 달라졌다. 남양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커서 인구수가 5만에 가깝게 되어 상당히 많은 거주민들이 갑자기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화성시가 되었던 장주·태림(태촌)·용복·안녕면 등지의 인구 추이는 더욱 놀랄 만하다. 18세기 말에 비해 20세기 초반에 이르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용복면(龍伏面)의 경우 호구 수가 221호에서 284호로 28.5%가 증가하였지만, 인구는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안녕면(安寧面)의 경우에도 호구 수가 451호에서 553호로 22.6% 소폭 증가하였지만, 인구 수에

서는 1,387명에서 2,594명으로 87%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18세기 이후 19세기 중엽을 거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농촌사회 내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2) 정조 연간 수리시설의 확충과 농업생산력 제고

18세기 말 조선왕조의 정조 연간(正祖; 1777~1800)은 조선후기 문예부흥을 이룩했던 시기요 시대적 전환기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혼을 달래며 국왕권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개혁을 추구했다. 1789년(정조 13)부터 시작된 읍치의 이전과 화성 건설은 분명 정권의 정치적 명분과 정통성을 확고히 했던 사업이었다.

화성축조는 처음의 계획으로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화성은 당대 최고의 성곽 축조술을 모두 활용하여 2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곽을 건설하였다. 대도화에 어울리는 상업과 농업, 그리고 제산업의 진흥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적으로 고안된 도시였다.

화성축조의 배경에는 당대 민인들의 농업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에는 당시 농민들이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진농법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모내기라는 논농사의 변화였다. 당시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농경지 개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생산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1778년(정조 2) 1월 「제언절목(堤堰節目)」을 반포했다. 여기서 제언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기술을 보급하며 수리시설의 이용도를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기존의 제언을 활용하거나 보(淤)를 충분히 이용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어 1782년에는 전국의 제언 수를 조사하여 비치해 두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정조 당시 수원의 제언시설은 얼마나 되었을까. 제언시설의 내역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실려있는 『수원읍지(水原邑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모두 23개의 제언이 보인다. 유문제(留門堤) · 작현제(鵲峴堤) · 진장제(陣場堤) · 방답제(方畓堤) · 사모리제(沙某里堤) · 도차리제(道差里堤) · 직교제(直橋堤) · 동파제(東坡堤) · 권동제(權洞堤) · 어읍교제(於邑橋堤) · 감상제(甘嘗堤) · 지의제(智義堤) · 수금제(水今堤) · 적사리제(赤沙里堤) · 도마교제(道馬橋堤) · 장교제(長橋堤) · 여외지제(如外池堤) · 광동제(光洞堤) · 건여제(件餘堤) · 신원제(新院堤) · 신라물제(新羅勿堤) · 손항제(孫項堤) · 기지제

(基池堤) 등이다.³⁾ 이 제언들은 대개 크기가 300척에서 500척 정도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그래서 물의 혜택을 받은 몽리답이 불과 10섬지기 정도였다. 다만 옛 수원에서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는 장주면(章洲面)에 있는 장교제(長橋堤)가 가장 큰 규모였다. 이는 지금의 원천동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둘레가 2,051척, 깊이가 1척이며, 수문 2개에 몽리답이 50섬지기 정도였다. 이런 장교제를 제외하고 수리시설이 그리 크게 확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793년(정조 17) 수원 읍치가 이전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면서 화성축조가 이루어지고 관내의 호구가 1천여 호로 늘어났다. 화성은 편평하고 넓은 평야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사방이 모두 전토(田土)였다. 그렇지만 부 아래 새로 들어오는 민인들은 전토 얻기가 어려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이듬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한재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므로 1794년 11월 1일 정조는 화성 성역의 중단을 결정할 정도였다. 그 대신에 농민들의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해서 수리시설을 축조하고 둔전(屯田)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때 반포된 윤음(綸音)에서는 농업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고 있었다. “내년 봄에 얼었던 땅이 녹을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성 밖의 거리가 가깝고 척박한 땅에다 깊이를 헤아려 1장이나 반 장 정도 땅을 파고 대략 백 곡(斛) 쯤 되는 씨앗을 파종할 만한 경계를 적당히 정한다. 그 뒤 그 흙을 거두어 성벽에 달라붙게 한다. 말 다섯 필과 수레 두 채를 이끌고 그 땅을 중형으로 달리게 하여 동남쪽 이랑을 깊이 파고 김멜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자갈밭을 옥토로 바꾸어 수천 정(頃)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⁴⁾

다음 해인 1795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둔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2만 냥의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새로 개간하기도 하여 토지의 규모를 1백 석을 파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도랑을 파 물을 대고 제방을 설치하는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언이 축조되었다.

이 제언은 화성의 북쪽으로 정확히 5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광교산(光敎山)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뚝 잘라 방죽을 쌓았다. 둘레가 1,022보, 길이가 875척이며, 넓이가 850척이었다. 높이는 12척 5촌, 두께가 10척 5촌, 깊이가 8척 7촌이었다. 독은 남쪽의 흙 언덕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석벽에 멈추었다. 남쪽머리의 제방이 시작하는 곳에는 하나의 도랑을 만들었다. 나무를 깎아 우물난간의 기틀처럼 만들고 가로지른 나무판을 겹겹이 심어 구멍을 관통시켰다. 내면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가로로 14층의 판목을 나누어 놓았다고 한다. 관개할 때에는 판목을 열어 방수하여 수량을 적당히 조절하였다.

1796년 1월 20일 정조가 현릉원(顯陵園)에 배알하려고 이곳을 지나갈 때가 있었다.

3) 『輿地圖書』 수원읍지(水原邑誌), 1043쪽, 참조.

4)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域董工諸臣綸音)』, 『정조실록』 권41, 18년 11월 1일.

정조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관개(灌漑)하는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못을 파면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앞 들판에서 수확한 것이 이미 1천 곡(斛)이 되었다.”고 자못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종전 교구정(交龜亭)이라 부르던 정자를 영화정(榮華亭)으로 바꾸도록 했고, 이곳의 들판을 관길(觀吉)로 하고, 평의 이름을 대유(大有)로 하였다. 또한 도랑[渠]의 이름을 1천 곡을 내는 제언이라는 뜻으로 ‘만석거(萬石渠)’라 명명하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도록 하였다. 1795년 가을 저수를 마친 만석거로 말미암아 장안문 밖 척박했던 대유평(大有坪)은 논농사에 적합한 지대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이해 11월에 비로소 화성의 둔전(屯田)이 완성되었다. 둔전답의 규모는 무려 109석 14두락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주변의 둔전과 비교해서도 매우 컸다.

만석거를 축조한 이후에도 1797년(정조 21)과 1798년에 재해가 연속해서 일어났다. 이때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컸었는데, 전라도의 경우에는 총 답 면적의 약 4분의 1이 재결(災結)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였다. 수원 화성지역은 만석거로 말미암아 재해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정조는, “지금 화성의 만석거를 보면, 제언이 아직 축조되기 이전에는 거친 땅에 폐답으로 썩만 울창하게 자라는 데 불과하였던 땅이었는데, 제언이 축조된 이후에는 물줄기가 호탕하여 버려진 땅이 비옥한 전지로 변하였다. 비록 지금 4~5월의 가뭄 속에서도 제언 아래에 있는 누백 석의 대평(大坪)은 한결같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어 재해를 재해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정조는 제언의 수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농업대책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정조는 원래 화성지역에 만년제(萬年堤)를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만년제는 현릉원 입구에 위치한 제언이었는데, 1798년 2월 3일에 시작하여 4월 15일에 공사를 마쳤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洞)을 만들고 제(堤)를 쌓았다. 그 다음 독 위에 버드나무와 떼를 입히거나, 은구(隱溝)를 만들거나 소나무를 심었다.

이 만년제는 이때 새로 만든 제언은 아니었다. 본래 방축수(防築葦)라는 제언이 있었다. 1795년에 만년제로 바꾸어 불렀고, 이후 1798년에 보수와 개축공사를 한 것이다. 개축으로 말미암아 만년제는 길이 460척,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깊이가 5척이었다. 소규모의 제언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물리면적은 훨씬 커져 62석락에 이르고 있었다. 이를 완성하고 나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감회어린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화성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며칠 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어 이 제방의 물을 저장하면, 현릉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토지에 이 물을 관개하게 될 것이니 이는 장안문 밖에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如意洞)을 세우고 대유둔을 설치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을 쌓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신칙하고 내탕전 수만 금을 내려서 결심하고 시행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지만, 일의 시작을 함께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 것”이라고 하였다.⁵⁾ 정조는 만석거를 처음으로 축조할 때 민인들이 함께 도모하지 못했으나 이제 와서는 도리어 만년제의 축조와 그 혜택에 크게 주목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만년제의 구축은 인근이 민전과 둔전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현릉원과 용주사의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화성 건설시기에 정조는 이곳 화산동에 있었던 만년제 수리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재해를 더 이상 입지 않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3) 19세기 농업 위기의 심화와 화성지역의 대책

조선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농민층 내에 다양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토지 없는 농민, 영세빈농이 점차 많아졌고, 지주 소작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소수의 부농이 경영면적을 확대했으며, 지주들도 많은 토지를 매점해 나갔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 당시 농업 농민문제는 단지 경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1798년 11월 30일 정조는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내렸다. 이 윤음에서 장차 ‘농가지대전(農家之大全)’을 만들려고 하니 전국 각지의 농업 실정과 농업기술에 대한 좋은 방책을 올리도록 하였다. 특히 수리에 힘쓰고[興水功], 토양을 돕고[相土宜], 농기를 이용토록[利農器]하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농서(農書)나 농정(農政)에 관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었다.

정조나 당시 관료들의 입장은 대체로 수리(水利)와 둔전(屯田)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권농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당시 화성지역에 사는 유자(儒者)들에게도 농정책을 별도로 주문하고 있었다. 이에 부응하여 전동지 김양직(金養直), 절충 원재하(元在夏)는 그들 나름의 농정책을 제기하였다.⁶⁾

김양직은 농업에서 수리시설의 확충과 이양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미 축조된 만석거의 관개 효능에 대해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점을 강조했다. 우선 제언과 보를 축조하여 겨울에도 물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 농토를 깊게 갈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한 우경법을 도입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로 묵은 밭을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의 수리시설 확충론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농법으로서 이양법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5) 『정조실록』 권48, 22년 4월 27일.

6) 『정조실록』 권50, 22년 11월 30일.

왜냐하면 대농(大農)들이 대개 4석락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 임노동을 이용한 이앙을 하기 때문에 결국 10배 이상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원재하는 둔전경영을 중심으로 농정개선책을 주장했다. 화성 주변 지역의 여러 평야에는 취락이 희소하여 사람들이 광작을 일삼았는데, 오로지 이앙과 수리를 통해 묵은 땅을 개간하여 비옥한 답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화성 주변 다섯 지역의 평야에 제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장족평(長足坪)·안녕평(安寧坪)·복용평(伏龍坪)·부곡평(富谷坪)·서둔(西屯) 등지였다. 그리고 화성의 군민들을 동원하여 제언을 축조하되 축조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10년에 걸쳐 진황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둔전 농민들 중에서 농사에 근면하고 노획한 농민 한 사람을 뽑아서 집강(執綱)으로 삼아 농민들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강 중에서 최대의 수확을 거둔 사람들을 관에서 포상하는 제도를 수립하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었다. 그의 논의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화성시의 화산동 주변이라고 추정되는 장족평·안녕평·복용평 등의 평야에 제언과 둔전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수리시설 확충과 둔전 경영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은 주로 광작과 농업경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결국 지주와 부농들이 농업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정부 주도의 농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방안을 제기하는 논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수원출신 농촌지식인이자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었다. 그는 1796년(정조 20)과 1804년(순조 4)에 국왕의 윤음에 대한 응지소(應旨疏)의 형태로 자신의 독특한 농업개혁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관수만록(觀水漫錄)』에서 당시 수원지역의 농업실태와 일련의 농업개혁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⁷⁾

우선 우하영은 당시 기전(畿甸)지방에서 성행하던 광작을 크게 비판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근면여부가 농업생산량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였다. 소출의 다과는 생산자의 근면과 나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의 화성 지역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근래에 민심은 원래 힘써 부지런히 농사지를 계책은 하지 않고 오로지 광작(廣作)하는 것을 농사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몇 식구 안되는 집에서 모두 수석락(數石落)의 논을 경작한다. 이 때문에 이미 밭에 똥거름도 하지 않고, 또 힘써 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답주로 하여금 실리게 하고, 그 자신은 광작함으로써 말미암아 영리(贏利)를 얻는다. 이것은 실로 요즈음의 고질적 병폐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앙법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당시에는 이앙을 하려다 물이 없어 실농(失農)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파(直播)를 하면 농사를 전폐

7)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참조.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터인데, 농민들이 나태해서 광작할 욕심으로 주앙(注秧)을 했다가 비가 안 오면 이앙을 못하고 논을 전폐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답에서는 절대로 이앙을 금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물론 그가 이앙법의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농촌현실에서는 사실 수리시설이 확충되어 있다면 이앙법은 매우 효과를 보는 농법이었으며, 특히 소출량을 비교하면 직파법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일반적으로 이앙법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는 도리어 수리시설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이앙은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다.

우하영의 기본입장은 나농(懶農)으로 토지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광작의 확대를 반대하였으며, 소농 중심의 기술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하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의 증대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만큼 소농중심의 집약농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가 대농(大農) 부농층의 경영확대로 인한 농민층 분해를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7~18세기에 실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균전론이나 정전론과 같이 토지재분배를 통해서 농민경제를 안정화시키자는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도시 수원부 내의 농민들에게는 조그만 땅도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리(北里)에 있는 신작 둔답(屯畓)을 영문(營門)에서 읍민에게 병작을 주어 해마다 수세한다면, 이것이 읍민이 농사를 짓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둔전의 도조(賭租)를 크게 낮추어서 새로 들어온 수원부의 소작농민들에게 혜택을 베풀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일정한 토지경리를 보장하고 자율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업을 보장하는 소농민 보호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둔전에서도 벼농사만을 고집하지 말고 작인들로 하여금 미나리나 무를 심든지 뜻대로 경작케 하여 편의에 맡겨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둔전에서 100호가 훨씬 넘는 농가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토지집적과 지주제를 그대로 둔 채 소작농민의 부지런한 농사짓기만을 강조하였다. 다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둔전의 토지를 나누어 경작케 하여 농민들을 안정케 하는 차원에서 소농민 경영의 안정과 보호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당시 정조는 이들의 농정책을 받아들이면서 화성을 대상으로 일련의 농정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하였다. 1798년(정조 22) 6월에는 화성부에 미곡을 심지 말고 메밀을 심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듬해 5월에는 영화동에 물길을 내는 일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둑을 설치한 본래의 의도대로 공전이든 사전이든 간에 균등하게 물을 대도록 하였다. 1799년에 축만제(祝萬堤)가 완성되었다. 축만제는 곧 지금의 서호(西湖)이다. 이는 화성의 서쪽으로 5리 북쪽에 있다. 길이 1,246척, 너비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깊이 7척이며, 2개의 수문이 설치되었다. 몽리답이 무려 232섬지기가 되는 커다란 제언이었다. 축만제를 배경으로 하여 둔전이 설치되었는데, 그 크기가

무려 83석 15두 4승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조 연간 내내 수리시설의 확충과 개간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800년 6월 1일에는 360여 일경의 면적을 개간하기를 장려한 화성유수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을 하고 있다.

당시 정조 연간에는 화성축조와 관련되어 수원의 읍치 이동과 축조경비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지에 둔전이 설치되었다. 특히 1787년(정조 11)에 기내(畿內)에 두 세 산군(山郡)에 장용영 향군 2초를 두고 둔전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둔전설치는 이른바 ‘병사와 농민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간주되었다. 1795년 대유둔(大有屯)과 1799년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완성시켰다. 만석거의 축조와 관련된 대유둔전은 화성의 부민들을 농업에 힘쓰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당시 둔전설치절목에는 이러한 뜻을 강조하고 있었다. 대개 이 둔전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성민의 제산(制産)을 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소작인에게 분급할 때 먼저 교리(校吏)와 관예(官隸) 등 관아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내의 민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관에서 종자와 소를 나누어 주고 절반수확을 수성고(修城庫)에 비축하도록 하였다.

대유둔전의 위치는 장안문 밖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등촌(高等村)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북쪽 들의 진황지였다. 처음에는 큰 규모(109석 14두락)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20두 기준인 전석(全石)으로 766석이었고, 결부로는 26결여로 책정되었다. 도조(賭租)로 두락당 7~8두 정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음해 종자분·감관(監官)·색리(色吏)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모두 596석 1두 5승이었다. 이후 30여 년 후에 발간된 『화성지(華城誌)』에도 764석 6두 5승을 도조로 납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의 둔전경영에서 특이한 점은 둔전의 작인들에게 농우(農牛)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200냥을 내려주어 10마리의 소를 구매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 경운과 김매기 등의 농작업에 필수적인 축력을 제공하고 소를 이용한 비료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둔전을 관리하는 인원으로서 둔도감(屯都監) 1원은 일반 농민이 아니라 양반 중에서 차출했으며, 감관(監官)·색리(色吏)·마름[舍耨]·권농(勸農)·사령(使令) 등을 두었다.⁸⁾

이러한 둔전의 경영형태는 대유둔전 이후 만들어진 축만제둔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 둔전은 규모가 매우 커서 규모가 83석 15두 4승락으로서 결부로도 대략 86결여나 되었다. 이 둔전의 위치는 대개 북부면(北部面)에 속해 있는 당시의 영화동(榮華洞)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문 밖 군기동(軍器洞)·서둔평(西屯坪)에 걸쳐 있었다. 도조는 556석 14두 4승으로서 대개 두락당 6.6두 정도 수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작료 수취율은 당시 민간에서 행하던 타작이나 도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적어도 수확의 3분의 1

8) 염정섭,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경영-화성성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82, 1996.

정도는 되었던 만큼 결세 수준에 비해서는 높았다.

화산동 지역과 관련된 둔전은 수원둔전 27부 2속, 수어둔(守禦屯) 12부 2속 등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신에 이곳에는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을 유지하게 하는 농원위전(陵園位田)이 많았다. 용릉전은 밭이 11결 2부 4속, 논은 22결 3부 9속이었고, 건릉전은 밭이 9결 4부 5속, 논은 35결 11부 8속이나 되었다. 이들 용릉·건릉의 소유 토지를 합하면 77결 22부 6속으로 안녕면 전체 결수의 37.9%나 차지하고 있었다.⁹⁾ 이는 만년제의 축조 및 몽리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말 정조의 화성 건설은 일련의 농업대책 속에서 진행되었다. 곧 거대한 제언의 수축과 그 혜택을 받는 광대한 둔전의 설치, 그리고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개간에 참여하게 하여 경작지를 고르게 나누어주는 농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조의 농정책은 당시 농촌사회와 농민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었는가. 정조 연간에 실시된 화성지역의 둔전경영은 본래의 취지대로 소농민경제의 안정화 정책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다. 실제 영세 빈농, 무전농민에게 소작지의 분배를 확대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지주제의 발달과 농민층의 몰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지주 소작제라는 낡은 농업생산관계는 그대로 인정한 채 시도된 둔전경영과 농정책은 당시의 농민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선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조가 취할 수 있는 농정책의 범주와 한계라고 할 수 있다.¹⁰⁾

(4) 1900년대 화산동 경제 형편과 농민층 분화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조선후기 이래 발전하는 상품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1876년 개항이라는 시장경제의 확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이 일본에 수출하였던 주요 물품은 쌀과 콩 등 농산물이었다. 당시 농촌과 유통시장이 개항 이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880년 말 이후 미곡의 유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 내의 곡물유통은 일본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중부지역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미곡시장의 확대는 서울을 대상으로 소비시장과 세미의 수송에 그치고 있던 상품유통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시기 지주들은 개항 이후 상품유통경제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더 많은 토지를 집적하면서 지주경영을 강화했다. 이는 개항장 부근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지주경영을 활용하여 미곡무역을 통해 소작미를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켰다. 지주제의 강화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토지를 추가 매입

9) 『경기도수원군양안』(규 17651) 57책, 면총목 참조. 광무양안의 필지별 집계와는 약간 상이하다.

10) 『기전문화예술』 1999년 가을호(통권 7호), 35~45쪽 참조.

하고 동시에 소작농민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강화시키느냐에 달린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농민층은 국가의 조세수탈이나 지주의 소작미 징수 등으로 자신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적었다. 이들은 유통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층들은 보다 확대된 유통경제의 발전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키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토지소유에서조차 점차 방출되었다. 영세 소농, 빈농들은 심지어 토지 없는 농민으로 전락해 갔다.

19세기 후반 토지소유와 농업생산을 둘러싼 각계층간의 갈등은 결국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이라는 정치적 변혁을 초래하였다. 당시 갑오개혁에서는 조세의 금납화를 통해 농업에서의 조세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상품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조세의 부과명목은 종래 각종 봉건부세의 항목과 합쳐져 지세로 통합되었지만, 실제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측량하거나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양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제국 정부는 보다 전향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당시에는 조선후기 숙종 말년인 1720년 경자양전 이후에 전국적인 양전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았다. 더구나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토지침탈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근절하는 동시에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¹¹⁾ 1898년 대한제국 정부는 '구본신참(率舊章而參新規)'이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 이는 신구의 제도를 새롭게 절충하고 개혁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기존의 양전방식을 크게 변용하면서 근대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898년 6월 대한제국의 광무정권(光武政權)은 '토지측량(土地測量)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측량의 대상을 농지의 비척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지질, 산림과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전국토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였다.¹²⁾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양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양전사업을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립하였다. 그렇지만 양전사업은 곧바로 실시되지 못했고 다음 해로 미루어졌다. 1899년 4월 1일 구체적인 양전시행 방침이 수록된 양전조례(量田條例)를 반포하고 한성부지역으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를 측량하기 시작하였다.¹³⁾

1899년 6월 양지아문은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에서 시범적인 양전을 실시했다. 아산군의 양전은 예상대로 크게 성공하였고, 전국적으로 양전을 확대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아산군에서 양전을 담당했던 양무위원(量務委員) 4인 중 한 사람인 이종대(李鍾大)가 경기도의 양무감리로 승진 파견됨으로써 경기도의 양전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전이 처음으로 실시된 곳은 용인과 수원 지역이었다. 도지역에서

11) 김용섭,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 『한국근대농업사연구(下)』, 1984, 508~509쪽; 왕현중,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41~119쪽.

12) 「거첩존안(농상공부거래첩존안)」, 3책, 「토지측량에 관한 사건」(1898년 6월 22일); 「주의」, 17책 (1898년 6월 23일).

13) 『황성신문』 1899년 4월 1일자 잡보 「양지개시」, 679쪽; 「시사총보」 52호, 「양지발훈」 1899년 4월 2일; 「시사총보」 53호, 「양지고시」, 1899년 4월 4일.

비교적 지세의 폐단이 많았던 지역으로부터 양전을 실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수원군 양전은 1900년에 전체 39개면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곳 화산동과 관련된 지역은 당시 수원군 안녕면(安寧面)에 속해 있었다.

이 안녕면은 동쪽으로는 태촌(台村), 남쪽으로는 문시(文市), 서쪽으로는 남부(南部), 북쪽으로 장주(章洲)면과 인접해 있었다. 이곳의 양전은 경기도 양무감리인 이종대의 지휘하에 위원 서병덕(徐丙德)과 6명의 학원(學員)들이 양전을 담당하였다. 양전은 1900년 2월 14일 곡반정일동(谷礮亭一洞)에서 시작하여 2월 27일 배양평(培養坪)에서 끝났다. 불과 2주일 만에 조사하였으므로 조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았다. 이후 여러 차례 정리 과정을 거쳐 1900년 7월 17일부터 교정 작업을 시작하여 9월 10일 경에 일단 양안(量案)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녕면 전체 토지의 규모는 전답 총면적이 498만 5,669척으로서 약 543.8정보(1정보, 9,168척 기준)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1건물, 민호 450호, 초가 1,841칸(間)이나 되었으며, 물레방앗간도 2곳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양안상에 기재된 이름은 일제 강점하에서 조사된 토지조사사업에서와 같이 민적부(民籍簿)에 기록된 인명과는 달랐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흔히 우리 이웃에서 불렀던 이름과 족보나 호적상에 기록된 이름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로 추정되는 윤용섭(尹容燮)은 윤용석(尹用石)으로도 기록되고 있으며, 임국신(林局信)은 임국신(林局申)으로도 기록되고 있다.¹⁴⁾ 이렇게 혼란된 이유는 당시 토지소유자의 이름을 호적상의 이름과 일일이 대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토지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양전을 조사하는 사목(事目)에서도 토지 소유자를 일일이 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⁵⁾

경기도 수원군 안녕면 광무양안에는 1900년 당시 화산동과 그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 상태를 일정 정도 그려주고 있다. 이 양안을 통해서 100년 전 화산동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주로 있었고, 어떤 사람이 소작인으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안녕면 주민들의 토지 소유와 경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안녕면 양전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당시 양전을 시행했던 지역의 일자와 담당 관리들인 지심인(指審人)들을 정리한 것이다.

14) 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115~134쪽.

15) 광무 양전사목 제6조에는 “전답 시주가 아침저녁으로 변동하며, 一家의 경우에도 異産의 경우도 많으니 전답주의 성명을 확인하는 작업은 다그쳐 묻지 말고 민들의 편의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심하고 가족내에서도 分戶別産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時事叢報』 52호, 53호 「量地衙門施行條例」(1899년 4월 2일, 4일), 참조).

〈표 2〉 수원군 안녕면 광무 양전 시행경로

순서	지 역 명	평명	지심인	시작 지점	날 짜	순서	지 역 명	평명	지심인	시작 지점	날 짜
1	谷礪亭一洞	谷礪亭坪	崔治根	慕자 1번	1900.2.14	19	元塘坪		朴彦禮	忘자 1번	2.22
2			鄭建好	慕자 43번	2.15	20	間 村	間村後坪	金先敬	岡자 1번	2.15
3			金永西	貞자 21번	2.16	21			鄭喜成	岡자 47번	2.16
4	野礪亭洞		朴永元	烈자 27번	2.17	22			金德均	談자 71번	2.17
5			朴永玄	男자 32번	2.18	23			金春興	短자 1번	2.18
6	谷礪亭		金永西	男자 100번	2.19	24	長芝洞		韓昌熙	靡자 38번	2.19
7			申萬得	效자 1번	2.14	25			金擇玄	侍자 31번	2.20
8			金永西	效자 24번	2.15	26	店 村		柳石春	己자 1번	2.21
9			崔醉根	才자 11번	2.16	27			李汝好	己자 60번	2.22
10			申春五	良자 2번	2.17	28			崔又參	己자 99번	2.23
11	大皇橋		李子云	知자 1번	2.18	29		湍下坪	金洛如	使자 67번	2.23
12	中伏坪		李奉玄	知자 13번	2.19	30	湍下坪		表章石	可자 24번	2.24
13			全自云	必자 43번	2.21	31	湍下前坪		安敬心	覆자 15번	2.24
14	黃鷄洞		申仁守	得자 31번	2.23	32	湍下坪		金致水	覆자 34번	2.25
15	皇橋初境坪	禾束坪	柳剛敏	能자 1번	2.19	33			李君西	量자 13번	2.26
16		禾束坪	金先局	能자 31번	2.19	34	西鵲峴坪		李允京	悲자 1번	2.25
17		元塘坪	金承九	莫자 13번	2.21	35	安寧里		李君西	悲자 85번	2.26
18	元塘坪		朴彦禮	莫자 84번	2.22	36	安寧里後坪		李允景	絲자 90번	2.25
						37	培養坪		金善材	詩자 25번	2.27

안녕면 각 리동별 토지측량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각 지방에서 면단위로 실제 들에 나가 측량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초기 양전에서 작성되는 장부를 ‘야초(野草)’라 불렀다. 여기에는 각 필지별로 전답과 초가·와가의 구별, 배미의 기재, 양전 방향, 토지형상, 사표(四標), 실적수(實積數), 등급, 결부수, 전답주 및 작인 등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초기 양전 기록의 정확성 여부가 전체 양전 및 양안작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수원군 안녕면 양전은 측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안의 기록내용에서는 면적을 수정한다든지, 토지 등급을 수정하여 결부수를 늘리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용릉과 건릉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아예 작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필지가 많았다.

광무양전의 두 번째 단계는 야초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중초책(中草冊) 양안’을 작성·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군별로 양무위원과 학원들이 한데 모여 각 면별로 측량된 야초를 수집해서 전체 군단위로 새로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가호수를 조사하면서 대지 소유자와 대지를 빌려 사는 임차인(賃借人), 즉家主(家主)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군별로 정리된 중초책 양안을 양지아문에서 모아놓고 재수정하는 과정

을 거친다. 이른바 '정서책(正書冊) 양안'을 완성하는 단계를 밟았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군의 양전은 당시 양지아문에서의 측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903년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양안을 갱신하였다.¹⁶⁾ 이때 지계아문의 조사위원들은 양지아문 시기에 만들었던 중초책 양안의 표지에 초사(初査), 재사(再査)를 붙여가면서 각 면별로 전답의 실적통계 및 결부 수, 시주(時主)와 시작(時作)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제 양안을 만드는 목적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유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경영자를 나타내는 작인(作人), 혹은 시작(時作)의 인명은 모두 생략되었다.¹⁷⁾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이전 양지아문에서 조사한 실적수와 결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토지면적인 두락으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1900년 당시 수원군 안녕면 농민층들은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표 3〉 수원군 안녕면 양안에 기록된 필지별 토지 소유 현황

(단위 : 척)

필 지	인원	척 수	비중	비중2	필 지	인원	척 수	비중	비중2
1	237	532,761	50	11	14	2	43,656	0.4	0.9
2	83	324,855	18	6.5	15	3	103,743	0.6	2.1
3	38	229,585	8.1	4.6	17	1	35,063	0.2	0.7
4	20	160,327	4.2	3.2	19	1	54,907	0.2	1.1
5	21	231,479	4.4	4.6	23	1	50,807	0.2	1
6	14	174,503	3	3.5	25	2	109,633	0.4	2.2
7	13	215,893	2.8	4.3	38	1	80,571	0.2	1.6
8	8	123,263	1.7	2.5	45	1	37,013	0.2	0.7
9	7	124,974	1.5	2.5	47	1	118,501	0.2	2.4
10	6	117,942	1.3	2.4	393	1	935,526	0.2	19
11	6	131,280	1.3	2.6	434	1	930,491	0.2	19
12	3	72,047	0.6	1.4	총합계	472	4,980,798	-	100
13	1	41,978	0.2	0.8					

16) 이영호, 「光武量案의 기능과 성격」; 최원규, 「대한제국기 量田과 官契發給事業」(『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참조.

17) 「경기도수원군양안」(규 17650) 15책, 참조.

18) 양안에 기록된 인명(人名)은 호족상의 성명(姓名)이나 족보상의 것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이름들은 대개 호명(戶名)이거나 혹은 택호명(宅戶名)이거나 자명(字名)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노비명(奴婢名)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화산동에 살았던 조상들의 실제 이름은 더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1900년 안녕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1필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472명이었다. 1필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37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토지소유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건릉전(434필지 101정보)과 용릉전(393필지 102정보)이었다. 이들 토지는 전체 토지의 38%나 되었다. 이들 중 소유 필지가 10필지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표 4〉 화산동 지역 10필지 이상 토지소유자

(단위 : 척, 결부속)

순서	답 주	필지	척 수	결 부	재 지 지 주	부재지주
1	건릉(健陵)	434	930,491	48,156		건릉
2	웅릉(隆陵)	393	935,526	40,095		웅릉
3	박흥태(朴興台)	47	118,501	4,486	谷潘亭 效 24,29번지, 15칸 가옥	
4	나순필(羅順必)	45	37,013	1,764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5	윤용섭(尹容燮)	38	80,571	3,722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6	김순서(金順西)	25	54,158	1,729	野潘亭洞 男24, 10칸	
7	박복례(朴卜禮)	25	55,475	2,156	谷潘亭 才64, 10칸	
8	신인수(申仁守)	23	50,807	1,518	黃鷄洞 得43, 6칸	
9	김경락(金景洛)	19	54,907	1,543		거주지 없음
10	이경실(李京悉)	17	35,063	1,394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11	김중오(金仲五)	15	31,878	1,208		거주지 없음
12	박복남(朴卜男)	15	24,218	920	谷潘亭 才38, 5칸	
13	박순남(朴順男(南))	15	47,647	1,452	谷潘亭 男110, 8칸	
14	고윤오(高允五)	14	22,710	1,086	黃鷄洞 得34, 4칸	
15	김덕재(金德在)	14	20,946	786		거주지 없음
16	김원삼(金元三)	13	41,978	1,548		거주지 없음
17	박예금(朴禮今)	12	22,508	1,134	谷潘亭 才43, 3칸	
18	박순매(朴順昧)	12	25,222	985	谷潘亭 才35, 36, 16칸	
19	박언례(朴彦禮)	12	24,317	799		거주지 없음
20	고성삼(高性三)	11	15,947	512	間村 岡59, 6칸	
21	김덕문(金德文)	11	18,767	747		거주지 없음
22	박순점(朴順占)	11	26,268	955	谷潘亭 才42, 6칸	
23	박씨돌(朴氏堧)	11	15,832	446	谷潘亭 才47, 5칸	
24	정고양(鄭高陽)	11	36,982	1,479		거주지 없음
25	정명랑(鄭明郎)	11	17,484	735	谷潘亭一洞 慕40, 41, 7칸	
26	박복이(朴卜伊)	10	30,315	1,205		거주지 없음
27	박순복(朴順卜)	10	19,001	681	谷潘亭 才42, 5칸	
28	박필례(朴必禮)	10	8,389	340	谷潘亭 才25, 5칸	
29	수원역(水原驛)	10	16,147	551		역토
30	전자운(全自云)	10	17,268	507		거주지 없음
31	최범일(崔凡一)	10	26,822	1,222		대지는 있으나 거주지 없음

〈표 4〉와 같이 10개 필지 이상을 가진 토지 소유자는 모두 31명이었다. 여기서 안녕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15명이었다. 이들은 대개 곡반정동이나 황계동, 간촌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5칸의 가옥으로부터 15칸에 이르기까지 넓은 규모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밖에 건릉과 용릉, 역토 등 국유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이 지역에 토지와 가옥을 다수 가지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웃한 마을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수원 이외의 먼 곳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일 가능성이 높다. 대지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1900년 현재 안녕면에 거주하고 있는 10개 필지 이상 소유자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단위인 결부(結負)로도 적어도 50부 이상의 중규모 토지소유자들 중에서는 부재지주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수원군 안녕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주들의 토지소유 상황을 살펴보자.

〈표 5〉 안녕면 소재 지주들의 토지 소유 · 경영 상황

(단위 : 정보, 척)

단위(정보)	인원	비중	대 여 지	자 작	소 작 지	합 계	대여 · 자작 합계	비중
5~	9	1.9	2,150,362	177,721	8,628	2,336,711	2,328,083	47
4~5	3	0.6	72,362	43,611	6,136	122,109	115,973	2.3
3~4	4	0.8	7,624	119,775	11,218	138,617	127,399	2.6
2~3	24	5.1	135,842	404,162	54,891	594,895	540,004	11
1~2	55	12	159,232	556,750	186,748	902,730	715,982	14
0.5~1	82	17	95,392	448,912	304,859	849,163	544,304	11
~0.5	295	63	110,463	498,590	346,619	955,672	609,053	12
합 계	472	100	2,731,277	2,249,521	919,099	5,899,897	4,980,798	100

위의 표에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대여하거나 자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9명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비중은 전체 토지의 47%나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4정보 이상 5정보 이하의 토지를 대여하거나 자작하는 사람들은 3명, 3정보에서 4정보 사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4명, 2정보에서 3정보 사이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24명이었다.

당시 수원군 안녕면에 살고 있던 농민들 중에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3필지 이내 소규모의 영세 토지 소유자가 무려 358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전체 농민수와 비교하면, 75.8%나 차지하고 있었다. 〈표 5〉에서 주목되듯이 0.5정보 이하 극히 영세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29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가진 토지의 비중은 12%로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영세 자영농은 자기 토지로서는 농사를 짓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민을 겸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밖에 위의 표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기의 토지를 한 필지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기 땅 한 필지도 없이 소작으로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무려 499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기 토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1900년 당시 화산동에 살았던 농민 중에서는 3필지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나 0.5정보 이하 영세소농, 그리고 한 필지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소작농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다음과 같다.

〈표 6〉 안녕면 소재 농민들의 토지 소유·경영 상황

(단위: 정보, 척)

단위(정보)	인원	비중	대 여 지	자 작	소 작 지	합 계	자·소작 합	비중
5~	4	0.4	5,056	63,774	176,678	245,508	240,452	4.8
4~5	2	0.2	10,742	66,299	17,145	94,186	83,444	1.7
3~4	13	1.4	43,742	261,257	145,333	450,332	406,590	8.2
2~3	47	5.2	174,708	482,679	566,617	1,224,004	1,049,296	21
1~2	103	11	84,478	539,069	818,131	1,441,678	1,357,200	27
0.5~1	137	15	127,242	433,180	473,195	1,033,617	906,375	18
~0.5	601	66	144,785	403,263	511,577	1,059,625	914,840	18
합 계	907	100	590,753	2,249,521	2,708,676	5,548,950	4,958,197	100

1900년 당시 안녕면 주민들 중에는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려 짓는 농민들은 모두 907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0.5정보 이하 영세빈농은 601명으로 전체 농민의 66%나 되었다. 반면에 0.5정보 이상 1정보, 1정보 이상 2정보 이하의 농민들은 각각 137명, 103여명이었으며, 그 이상의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들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4정보 이상의 경영지를 갖고 있는 경작 농민도 일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혀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순수한 지주들은 모두 64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233정보나 되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의 43%나 되었다. 그만큼 많은 농민들은 이들 순지주의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극히 영세한 소유지와 경영지를 가진 영세 소농, 빈농들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영세 농민들의 경제 상황을 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용릉과 건릉 소유의 토지에 대지를 빌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다. 하나의 사례로 안녕리 후평에 있는 사(絲)자 지번 내 건릉 소유 대지에 집을 빌려 세 들어 살고 있는 농민층을 살펴보자.

〈표 7〉 건릉 소유 대지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 현황

자 호	지 번	면적(척)	결부(속)	칸 수	임차인	자 호	지 번	면적(척)	결부(속)	칸 수	임차인
絲	1	63	5	4	유사진	絲	48	36	3	2	이성필
絲	3	64	5	3	강홍엽	絲	49	36	3	2	김재봉
絲	5	195	17	4	차원서	絲	50	25	2	2	김덕중
絲	8	64	5	3	송경천	絲	51	49	4	3	하성근
絲	9	64	5	3	최장봉	絲	52	56	5	7	홍한필
絲	10	25	2	3	허학봉	絲	53	100	9	7	이경선
絲	11	64	5	3	박영숙	絲	54	45	4	7	김성보
絲	12	196	17	6	최중석	絲	55	32	3	3	양덕홍
絲	13	121	10	6	김상언	絲	56	225	19	3	강한풍
絲	14	64	5	3	송윤영	絲	57	225	19	3	김시화
絲	15	323	27	10	최덕규	絲	58	225	19	7	천태화
絲	16	168	14	7	정성연	絲	59	45	4	3	배창록
絲	17	64	5	2	김용기	絲	60	54	5	3	이순홍
絲	18	25	2	2	이소위	絲	61	121	10	3	이명수
絲	19	25	2	2	최덕균	絲	62	54	5	3	안명진
絲	20	64	5	2	송군수	絲	63	64	5	3	김치경
絲	21	121	10	3	홍복성	絲	64	54	5	3	김석천
絲	22	81	7	3	김윤칠	絲	65	54	5	3	박홍만
絲	23	144	12	7	홍성칠	絲	66	72	6	3	김치수
絲	24	49	4	3	장경준	絲	67	30	3	3	김여철
絲	25	196	17	4	배경조	絲	68	28	2	2	홍영순
絲	26	81	7	3	김춘엽	絲	69	169	14	9	이원일
絲	27	100	9	7	홍춘응	絲	70	36	3	3	표수영
絲	28	100	9	6	김윤필	絲	71	64	5	3	이흥선
絲	29	36	3	3	유사선	絲	72	49	4	3	윤영년
絲	30	64	5	3	최순선	絲	74	64	5	3	전치명
絲	31	49	4	3	박삼용	絲	75	49	4	3	김여국
絲	32	25	2	2	이익선	絲	76	56	5	2	홍군심
絲	33	81	7	3	황춘백	絲	77	49	4	2	이성화
絲	34	25	2	3	유귀동	絲	78	100	9	5	손화순
絲	35	49	4	5	김덕조	絲	79	56	5	3	이광서
絲	36	25	2	3	서명운	絲	80	130	11	3	김여로
絲	37	49	4	3	정홍준	絲	81	169	14	4	김치극
絲	38	225	19	8	김원보	絲	82	64	5	3	이광선
絲	40	81	7	3	이영선	絲	83	56	5	3	김치교
絲	41	121	10	5	홍성연	絲	84	144	12	10	진영운
絲	42	144	12	6	유치범	絲	85	54	5	3	강순도
絲	43	49	4	2	홍숙천	絲	86	144	12	5	이성연
絲	44	25	2	2	민경로	絲	87	72	6	3	안홍석
絲	45	126	11	7	백형기	絲	88	63	5	7	서은선
絲	46	36	3	2	김순서	絲	89	56	5	4	이군서
絲	47	36	3	2	박경실	합 계	83	6981	599	320	

〈표 7〉과 같이 수원군 안녕면 광무양안에 기록된 사(絲)자 지번 내에 있던 건릉이 소유한 대지는 모두 83개 필지였으며, 면적도 2,284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다. 이 대지 위에 모두 83명이 320칸의 가옥을 짓고 살고 있었다. 이들 세입자들은 건릉 공장토에 소작을 짓고 있는 영세한 농민들이었다. 이렇게 건릉의 땅에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은 무려 171명이나 되었으며, 용릉 소유의 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99명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사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372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전체 농민층 907명 중에서 38%나 되었다. 이렇게 1900년 당시 화산동 지역에서 영세소농·빈농층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도 아주 작거나 없었던 농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토지 위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경제형편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토지 소유와 경영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1900년 당시 화산동 지역에서는 한편에서는 영세소농, 빈농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넓은 토지를 소작지로 확보하고 경영하는 부농과 자영농민, 지주 등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19세기 말 농민층의 경제 형편의 분화는 계층간 갈등을 크게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심각한 갈등관계는 이 시기에 민란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1891년 6월 현릉원 원군(園軍)·동민(洞民)들의 민란으로 나타났다. 당시 능참봉 민병성(閔丙星)이 과다하게 남작(濫斫)한 것을 기화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민란의 원인은 참봉의 도조(賭租) 남징과 토지 경작인의 이작(移作)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민란에 참여했던 사족(士族) 김용규(金容圭)는 몰락한 양반으로 향토를 떠돌면서 “생계를 원토(園土)에 의지하였으나 이작에 감정을 품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¹⁹⁾ 이때 민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토지소유와 경영에 관한 극단적인 불평등한 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거대 지주로서 활동하고 있던 용릉과 건릉의 소유지를 관리하는 왕실, 혹은 조선정부에 대해 영세소농, 빈농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다수 화산동 주민들은 심각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주 소작제의 갈등과 모순은 이후 1894년 농민전쟁을 통해 크게 노출되었으나 역시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화산동 지역의 토지문제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1905년 일본제국주의는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인들은 재정 개혁, 국유지 조사, 일본인 토지 침탈의 합법화 등을 이용하면서 점차 한국의 토지를 잠식해 들어갔다. 이후 1910년부터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본자본주의의 토지 장악을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결과 화산동 지역의 많은 토지들은 일부의 일본인, 조선인 대지주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19) 『비변사등록』 272책, 고종 28년 6월 23일(557쪽), 8월 6일(566~567쪽), 고종 29년 5월 13일(642~643쪽) 참조.

1911년 당시 수원군 안용면 송산리·황계리·안녕리·배양리·반정리·대황교리 등 6개 리 지역의 토지소유상황은 다음과 같다.²⁰⁾

〈표 8〉 안용면 지역 지주의 토지소유상황(1911)

단위(정보)	인 원	필지 수	면 적	인원 비중	필지 비중	면적 비중
5~	12	736	1,887,077	4.3	47	74
4~5	3	43	40,273	1.1	2.7	1.6
3~4	8	91	79,861	2.9	5.8	3.1
2~3	15	127	115,955	5.4	8.1	4.5
1~2	50	231	206,467	18	15	8.1
0.5~1	58	142	122,847	21	9.1	4.8
~0.5	134	195	105,746	48	12	4.1
합 계	280	1565	2,558,226	100	100	100

1911년 수원군 안용면(安龍面) 6개리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모두 280명이었다. 이들 중에 5정보 이상 토지소유자는 12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면적은 188만 평 정도였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대토지소유자는 국유지였다. 국유 토지를 제외하고도 대지주들은 인원으로는 4.3%에 불과했지만,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0.5정보 이하 영세 농민들은 134명으로 전체 인원으로는 48%에 이르렀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겨우 4.1%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이는 10년 전인 1900년 상황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더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토지소유 통계에서는 5정보 이상 소유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대지주의 소유 토지가 넓어지는 대신 영세 농민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자.

이들 5정보 이상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는 지주는 모두 14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 지주들은 미야자키 후사야(岩崎久彌)와 국무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이었는데, 각기 23만 평과 2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미야자키 후사야는 경기도 용인·진위·수원·시흥에 논 9,557단(段), 밭 2,935단, 산림 1,147단, 임야 1,009단, 기타 162단 등 모두 14,810단, 총 44만 3천 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투자금액은 무려 48만 3,812엔에 이를 정도였다. 농지의 경영형태는 소수의 자작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토지는 소작지로 경영하였다.²¹⁾

한국인 지주들 중에서는 경성과 수원군, 용인군 등에 사는 부재지주의 토지가 많았다. 이들 부재지주들이 소유한 토지 및 임야는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20) 수원군 안용면 토지조사부에 수록된 토지에는 임야·지소·분묘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전답, 대지, 잡종지 등을 포함하여 통계 처리하였다(『수원군 안용면 토지조사부』 참조).

21) 『조선총독부경기도통계연보』(1914), 172쪽.

〈표 9〉 안용면 지역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소유상황(1911년)

순서	이름	소유면적	소유필지	주 소	비 고
1	국유(國有)	1,398,809	401		임야, 지소 4필지
2	이왕직(李王職)	269,480	71		임야 모두
3	미야자키 후시아(岩崎久彌)	234,244	119		임야 1필지
4	김순구(金舜九)	43,486	34		-
5	신태균(申泰均)	36,672	30		임야 1필지
6	이현영(李憲榮)	32,887	25		-
7	김여관(金汝寬)	30,976	37		임야 3필지
8	김용경(金用卿)	26,827	23		-
9	나홍석(羅弘錫)	25,494	8		임야 2필지
10	국무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	22,156	22		-
11	박인섭(朴寅燮)	20,100	16		-
12	이덕수(李德秀)	17,682	17		임야 3필지
13	최익환(崔翼煥)	16,713	19		-
14	박운학(朴雲鶴)	16,263	13		-
합계	-	2,191,789	835		-

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제하에 들어와서도 소수의 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다수 많은 농민들이 영세 소농, 빈농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일제 강점하에서도 지주제의 온존으로 말미암아 화산동 지역에서 토지소유를 둘러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1945년 해방 이후 농지개혁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때서야 조선후기 이래 발달해 왔던 지주제라는 구래의 생산관계가 폐지되는 가운데 영세소농·빈농들은 토지 재분배를 통해 화산동 주민들의 농민경제 안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3. 용주사 중창과 사하촌

한 동 민(수원시 전문위원)

(1) 용주사의 중창

용주사는 1790년 정조의 명에 의한 중창 이래 왕실의 지극한 보살핌과 최고의 사격(寺格)을 인정받아 왔다. 용주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조(正祖)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창한 원찰이다.

용주사를 새롭게 짓게 되는 데는 중앙관료 및 각도의 사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시 공명첩(空名帖)을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789년(정조 13) 11월 25일 우의정 김소(金所)의 요청에 따라 공명첩 250장을 성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능침사찰로서 용주사는 정조 당대부터 임금이 화산으로 원행을 할 경우 용주사 충섭은 예에 따라 대황교(大皇橋)에 군막(軍幕)을 설치하고 하사받은 별군장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도열하여 임금을 맞이하였다. 또한 왕실로부터 매년 백미(白米) 1백 석과 대두(大豆) 50석을 불량(佛糧)으로 하사 받았다고 한다.

정조 당시 용주사 승려들의 위세는 대단하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당시 병조판서 김문순(金文淳)은 “용주사 승려들의 군장(軍裝)은 충용청에서 지급하는데, 갑옷·투구·화살통은 붉은 모직을 쓰기까지 하니, 사치스러운 습속을 막아야 한다.”고 정조에게 아뢰기도 하였다.

물론 용주사 승려들이 늘 화려했던 것은 아니다. 도총섭 지휘 아래 장용영(壯勇營) 외영(外營)에 소속되어 포 쏘는 법을 시험하고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승졸(僧卒)과 다름이 없는 역할을 요구받았다. 이는 인근의 독성(禿城)을 협수(協守)하는 역할이었다.

이러한 용주사의 사격으로 인해 왕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에 1879년(고종 16) 11월 15일 용주사 개수를 위하여 공명첩 300장이 발급되었다. 즉 당시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내수사 보고를 받아 용주사 개수를 위해 공명첩 300장을 발행할 것을 아뢰어 고종의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명첩을 발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격을 인정받고 중요성을 공인받는 셈이다. 사찰 수리를 위해 공명첩을 발급한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던 제

도였다. 공명첩은 칙지(勅旨)·교지(敎旨)·첩지(帖旨) 등 지금의 사령서와 같은 것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비워놓은 것이다. 대개 주어지는 관직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혹은 오위장(五衛將)·부사과(副司果)·부사용(副司勇) 및 수문장(守門將) 등 하급 무반직이다. 이러한 관직을 향리의 부민(富民)에게 스스로 원해서거나 혹은 강제로 주어 금전을 내게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예로써 1793년 금강산 유점사 승려 돈징(頓澄)이 임금의 가마 앞에서 상언하여 유점사의 퇴락한 영산전·어필각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공명첩 100장을 발급을 받은 예가 있다. 또한 1851년(철종 2) 3월 4일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계청에 의해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수리를 위해 공명첩 400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당시 법주사는 순조(純祖)의 태실(胎室) 수호 및 열성조(列聖祖) 어필(御筆) 봉안 사찰인 까닭에 대왕대비의 명이었기 때문이다.

고종 당대에만 해도 1866년 1월 3일 안변 석왕사(釋王寺)에 공명첩 300장을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1879년 다시 공명첩 300장을 성급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15일 용주사를 위해 공명첩 300장을 내려 보냈고, 10월 10일 대구 동화사(桐華寺), 도봉산 회룡사(回龍寺), 공주 신원사(新元寺) 등에게 각각 공명첩 500장씩 성급하였다. 또한 사고(史庫) 수호사찰인 태백산 각화사(覺華寺)가 실화로 소진되자 공명첩 500장을 같은 해 11월 29일 내려주어 개축하게 하였다.

용주사는 현릉원의 능침사찰로 왕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찰이다. 이미 1789년 정조가 배봉산 영우원을 현릉원으로 바꿔 수원 화산으로 천봉한 후 13차례에 걸쳐 원행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고종은 할아버지 남연군이 사도세자(장헌세자)의 아들 은원군에게 입적됨에 따라 임금에 오를 수 있었다. 이에 1868년(고종 5) 3월 13일 현릉원과 건릉 그리고 화령전에 전배하고 화성행궁에서 재숙하였다.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난 후 장헌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면서 현릉원을 용릉(隆陵)으로 능호를 올렸다.

이후 순종 황제도 1913년 11월 19일(양력) 용릉과 건릉(健陵)을 참배하였고, 다시 1914년 9월 19일 용·건릉에 능행하였는데 관례에 따라 조중응(趙重應)과 이왕직 무관 신우균(申羽均)의 소개로 용주사 주지 강대련(姜大蓮)은 순종을 배알하였다. 이에 순종은 특별히 포도주 2병을 용주사 주지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2) 한말의 용주사

1) 용주사 명화학교

정부의 불교정책의 변화를 감지케 했던 사사관리서가 1904년 폐지되면서 수사찰 원흥사(元興寺)를 비롯한 교정의 통일적 운영 및 불교의 국가관리 체제는 무산되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관리체제를 대신하여 홍월초·이보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연구회(佛敎研究會)가 전국적 단위로 조직되었다. 불교연구회는 당시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근대적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원흥사에 설립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전국 각 사찰에서도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이른 시기에 용주사도 명화학교(明化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용주사의 명화학교(明化學校)가 1906년 11월 설치되었다. 이는 같은 해 해인사의 명립학교(明立學校), 건봉사의 봉명학교(鳳鳴學校), 범어사의 명정학교(明正學校)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른 시기의 지방학교 설치였다. 이름에서도 명진학교(明進學校)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학교가 설치되어 약 25개 정도의 초등수준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용주사의 명화학교 이외에 1910년 장단 화장사의 화산강숙(華山講塾)과 1915년 전등사의 전등학사(傳燈學舍)가 설립되는 정도였다.

용주사의 경우 1906년 11월 명화학교를 창립하여 생도 50여 명을 모집하였다. 용주사 승려를 비롯하여 송산리·안녕리 및 인근의 마을의 학동들이 대상이었다. 창립 당시 명화학교 교장은 차응허(車應虛), 교감 박성행(朴性幸), 한문교사는 박지안(朴智岸), 일어교사는 일본인 기무라[木村澹泊]였다.

교장과 교감 및 한문교사는 용주사의 승려로 추정되는데, 일어 교사는 일본인으로 당시 높아가는 일어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즉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에 의한 침탈이 점차 강화되자 일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과목 가운데 주요한 과목이 일어였던 것이다. 이미 수원읍내 남창리에는 화성일어학교(華城日語學校)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명진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교육운동에 힘쓰고 있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각 사찰의 학교건립이 불길처럼 번졌던 것이다. 이후 명화학교와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데, 1907년 의병전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학교교육에 관여하였던 일본인들이 철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화학교는 용주사에 설치되어 인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펼쳤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용주사가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2) 의병항쟁과 용주사

국채보상운동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1907년에 일제는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고자 했던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7월 고종황제의 양위를 강제하였고,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일본군 제12여단이 증파되고, 한국군의 해산이 결정되었다. 8월 1일 군대해산식이 거행되고 시위 1연대 제1대대장 박성환이 군대해산을 반대하여 자결하면서 시위대는 일본군과 충돌하였고, 이후 해산군인들이 각지의 의병과 합류하면서 의병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의병항쟁은 이미 1894년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1895년 10월 명성왕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과 12월 30일 공포된 단발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경기도 연합의병진으로 이천 수창의소(首倡義所)가 성립되고, 다시 남한산성 연합의진(聯合義陣)이 성립되면서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되었다. 서울진공작전은 우선 1단계로 수원 근방의 의병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이후 2단계로 남한산성 의병진과 협공하여 일본군을 격파한 뒤에 3단계로 삼남지방 의병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경기도 안성·평택 의병진 외에 충청도 온양·목천 의병진이 가세하여 수원을 성공적으로 점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민중들의 반일의식은 점차 높아갔다. 이러한 반일 의식은 의병투쟁으로 나타났고 수원과 남양군 일대의 해안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의병이 존재하였다. 특히 해안의 도서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의병투쟁이 유명하였는데, 일제는 이들을 ‘수적(水賊)’이라 불렀다. 이러한 의병 활동은 일본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해안지역과 섬이 가까운 지형적 조건을 이용하며 활동한 의병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안지역의 의병들의 활동은 1905년 이후 국망(國亡)에 이르는 19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05년 5월 13일 남양군 대곶도(대부도)에 2척의 배를 가지고 들어와 뱃길을 봉쇄한 뒤 섬 안의 부민에게 약 100만 냥을 거두어 17일까지 5일 동안을 머물다가 돌아갔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해산으로 인해 의병진에 합류한 군인들로 하여 의병투쟁(정미의병)은 보다 조직적이며 화력이 보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지에서 의병의 궤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돌게 되었는데 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1907년 수원군에 의병 창의를 촉구하는 통문이 나돌았다.

특히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홍일초(洪一初) 부대가 유명하였다. 홍일초는 1907년 12월 경 부하 200명과 함께 수원에서 활동하였고, 1908년 4월부터 정관원(鄭關元) 부대 200명과 함께 수원 청룡면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1907년 10월 11일 남양군에서 활동하던 의병 20여 명이 수원군 초장면(草長面)을 습격하자, 이에 놀란 일본인 우편취급인이 가족과 함께 도망쳤다. 11월 말 경 의병 50~60명이 수원군 남곡에 모여 부민에게 총기 등 군기와 군수전을 청구하고자 회의한다는 소식에 부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병활동이 점점 대담한 양상으로 발전하였고 용주사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三昨日 水原 龍珠寺의 義兵 幾拾名이 來到하야 午飯을 勒討하거날 該寺僧 一名이 糧米를 區處한다는 急步로 水原邑 日兵站所에 來告하 즉 日兵 五十名이 卽到該寺하야 義兵을 多數 捕縛하고 該寺는 衝火沒소 하얏다더라.

즉 1907년 9월 12일 의병 수십 명이 용주사에 들어와 점심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용주사 승려 1명이 쌀을 구한다는 핑계로 수원을 일병참에 고발, 일본군 50명이 용주사에 쳐들어와 의병의 많은 수를 포박하고 용주사는 불탔다는 내용이다.

사실 1907년 의병투쟁이 전국화되면서 산중 사찰은 의병들의 이동 통로에 위치한 보급거점이자 근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근거지였던 사찰에 대한 일본군의 방화는 의병을 토벌한다는 미명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의병들과 전투 중에 실화(失火)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의병들이 방화한 것으로 왜곡 선전함으로써 불교계를 견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무도한 방화에 직면하여 전국의 사찰들은 일본 불교 종파의 이름을 빌려 사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로 인해 용주사가 불탔다는 소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인 1907년 9월 18일 『황성신문』은 경기도 참서관(參書官) 김환목(金煥睦)이 내부(內部) 부군과장(府郡課長) 송지헌(宋之憲)에게 보고한 통첩에 근거하여 용주사가 불탔다는 것은 와전된 것임을 정정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의병들의 활동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수십 명이 백주 대낮에 용주사로 진입하는 대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담함은 의병장 권중식(權仲植)이 경기관찰사 앞으로 '9월 20일 군대 3,000명이 수원 용주사로 들어갈 것이니 백미 100석, 북어 200태 등의 군수 소용물을 미리 준비하라.'는 통첩을 발송할 정도였다.¹⁾ 그 이후 자료에서는 의병들의 용주사 진입이 확

1) 『義兵通牒』,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21일.

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병 3,000명의 용주사 진입과 군수품 준비를 통첩한 것은 의병들의 고도의 정치적 선전이거나 관민의 동요를 노리는 심리적 책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용주사 측의 의병들에 대한 인식이다. 용주사 측이 의병의 진입 사실을 일본군에 알림으로써 사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용주사 측의 고발에 따라 일본군 50여 명이 출동하여 의병들과 전투를 벌여 의병 다수를 체포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의병을 마치 불한당으로 인식함으로써 일본군을 통해 의병을 내쫓고 잡혀가게 한 것이다. 일본군을 보호자 내지 관군으로 인식하고, 의병을 약탈자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병에 대한 인식이 독립운동과 민족적 차원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라 사찰을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약탈자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견 민족적 견지로서가 아니라 사찰 수호 차원에서 의병과 일본군을 이해한 것으로 당시 용주사 측의 행위는 한말 불교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즉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용주사 전체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는 점과 용주사 경내에 들어온 의병을 밀고하는 등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의병에 대한 용주사의 대응은 일제의 정책적 책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제는 의병에 도움을 주거나 의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 산간 사찰에 대하여 가차없는 방화와 탄압을 자행하였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의병이 방화하거나 의병과 접전하면서 실화로 사찰이 소진된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찰이 일본군에 의해 방화 소진되었다. 따라서 용주사의 의병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일본군의 강압과 협박이 주효한 셈이었다.

일본군의 이러한 사찰에 대한 방화 약탈은 일반 일본인들의 사찰 문화재에 대한 약탈을 부추기게 만들었다. 한말 이래 일본인들의 문화재 약탈은 쉬운 돈벌이로 인식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갔다.

따라서 이러한 의병 출현의 상황은 용주사가 운영하였던 명화학교의 일본인 교사를 불안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서 일본인들이 용주사의 중종(中鍾)과 운판(雲板) 2개를 탈취해 간 사건이 있었다. 즉 1907년 10월 2일 일본인 2명이 찾아와서 저녁을 먹고 해질 무렵 돌아갔다가 깊은 밤 다시 와 숙박하고 돌아갔다. 이들이 없어진 뒤 종과 운판 2개가 없어진 것을 안 용주사 측은 사방으로 그들의 행방을 찾았다. 이에 문제의 일본인들이 화산리에서 일꾼 1명을 17냥 5전을 주고 사서 중종과 운판을 군포 정거장으로 지고 가서 서울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용주사는 종과 운판의 분실 사실과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후하게 사레하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 있다. 이는 의병 전쟁기 일본인 밀정들이 사찰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입수하고, 돈이 되는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약탈해갔던 상황을 보여준다.

지금은 탁본으로 중종의 모습을 유추해 볼 뿐이다. 정조 당대 조성되었던 용주사 중종의 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花山 龍珠寺 中鍾 重 三百二十
斤 崇禎一百六十三年 庚戌 秋造
嘉義大夫行水原府使 臣 趙心泰
奉直卽 顯隆園令 臣 洪就榮
通訓大夫 顯隆園令 臣 徐直修
監董 通訓大夫行振威縣令 臣
曹允植



용주사 동종 탁본

1790년 용주사 중건 당시 수원부사 조심태와 현령원령 홍취영과 서직수 그리고 용주사 중건의 총책임을 받고 있었던 진위현령 조윤식이 시주하여 조성하였던 중종이었다.

(3) 일제강점기 용주사

1) 절학교

안룡면 송산리에는 1935년 송산강습소(松山講習所)가 농촌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송산리에는 일본인 소학교인 안녕공립심상고등소학교(安寧公立尋常高等小學校)가 1927년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녕리·송산리 지역의 조선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부재한 셈이다. 물론 인근의 대항교리의 안룡보통학교가 1924년 개교하였고, 정남면 정남보통학교가 1930년 개설되어 있었다. 이들 보통학교는 4년제 학교로 운영되었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6년제 학교로 편입해야 했다. 당시 수원군의 6년제 보통학교는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흥초등학교)와 남양공립보통학교, 오산공립보통학교 등 3개교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으로 학교교육을 끝마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수원읍내의 수원공립보통학교에 5학년으로 시험을 거쳐 편입하였다. 당시 수원공립학교는 仁·의·예·지(仁義禮智) 조의 4개 학급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근 시골지역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온 학생들은 예조(禮組)에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돈없는 무산아동들은 학교 교육조차 받아 보지 못한 채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1935년에 송산리 차흥철(車興哲)·나대근(羅大根) 두 사람의 노력으로 송산강습소가 노동야학(夜學)으로 설립되어 송산리 진흥회당(振興會堂)을 빌려 가지고 아동 50여 명을 2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되었다. 송산강습소는 1937년 야학을 변경하여 주학(晝學)으로 운영하였는데 수업료는 가을에는 벼 1말, 겨울에는 보리 1말을 받아 운영하였다. 이는 당시 서당에서 받는 정도의 수업료였다. 그러나 1939년 인가를 제출하였으나 불허가 되어 오던 중 당국으로부터 돌연히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에 70여 명의 아동은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됨에 따라 용주사 주지 강대련은 이들 방황하는 무산아동을 위하여 병점에 있는 토지 8,000여 평을 팔아서 송산강습소 교사를 용주사 앞 밭에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신축할 때까지 임시로 용주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²⁾

강습소 인가는 용주사내 교육과 인가를 가지고 해결하였고, 교사를 새롭게 용주사 앞에다 신축하여 1940년 4월 20일부터 신교사로 이전하여 교육하였다. 강습소 운영을 위해 용주사는 병점 옆의 진안리 일대의 분묘지를 팔아 자금을 충당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에 1940년 2월 1일 용주사는 수원군 태장면 진안리 544-1번지 분묘지 6,698평 및 544-3번지 분묘지 126평 합계 6,824평에 대한 토지매각의 허가를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았다.³⁾ 진안리 6,824평의 매각 대금은 송산강습소 교사 신축과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송산노인정 어른들은 송산강습소에 대한 기억은 없고 '화산강습소' 혹은 '간이학교' 또는 '절학교'로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송산강습소는 용주사가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화산강습소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943년 당시 용주사에는 화산학술강습소(華山學術講習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⁴⁾ 이는 송산강습소의 이름을 용주사에서 인수하면서 화산학술강습소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강습소의 교사는 강원도 고성 출신의 최용환(崔龍煥)이었다. 당시 교사 최용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최선생이 무척 때렸다는 것과 돈을 엄청 밝혔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구멍 뚫린 5전 짜리 동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안 가져오면 매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교원의 봉급이 여의치 않았거나 그의 탐욕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받은 동전은 집안 장롱 안에 줄에 꿰어 놓아 무척 많았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다고 한다.

1944년 화산강습소는 경기도지사 인정 화산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 화산학교는 간이학교로 불리며 유지되었던 것 같다. 교사였던 최용환은 해방이 되고 난 후 그의 고향 강원도 고성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2) 『동아일보』 1939년 4월 16일.

3) 「사유토지 매각허가,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2월 6일.

4) 인기홍 선생 증언.

해방 후 교사로는 대교과(大敎科)를 배우고 있어 시간이 있었던 승려 정돈규(鄭惇圭)와, 화산 능참봉 딸이었던 이소희(정희), 음악을 가르쳤던 승려 손봉영(孫奉永), 그리고 승려 황종근(黃鍾根) 등이었다.

절학교는 70~80명의 학생이 천보루 오른쪽 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교사는 마루 바닥으로 이루어졌고 1학급으로 유치원생부터 다양하게 수용되어 있었던 것 같다. 6살 때 용주사 절학교를 다닌 기억과 겨울에는 화로를 돌려가며 추위를 녹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용주사 절학교는 용주사가 정남



용주사 천보루(1952)

면·안룡면·봉담면의 접점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 3개 면의 학생들이 배우러 왔다.

따라서 용주사 인근의 가난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화산강습소는 유용한 셈이었다. 1920년대 안녕리를 비롯한 안룡면의 소작인 비율은 60%, 자작 겸 소작 26%, 그리고 나머지가 자작 및 지주들이다. 따라서 80% 이상이 소작농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당시 수원군 21개 면 가운데 의왕·비봉·봉담·서신 다음으로 높은 소작비율이다. 따라서 안룡면 가운데 안녕리·송산리·황계리 일대는 소작비율이 더 높은 곳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는 또한 수원지역 전체 동척 이민 184호 가운데 안룡면 93호는 수원군 전체 동척 이민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점과도 연계된다. 즉 안룡면 동척 이민 93호 가운데 안녕리는 29호를 차지하고 있어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녕리 일본인 동척 이민이 여타의 마을에 비해 상당한 자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안녕심상소학교 설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안룡면의 동척 이민은 안녕리 29호를 이어 평리 15호, 황계리·기안리·배양리 각각 10호, 고색리 8호, 세교리·권선리 7호, 그리고 송산리 2호로 구성되어 있다.⁵⁾

〈표 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원을 받는 학교조합⁶⁾ (1915년 말)

군 명	학교조합명	보조금액(円)	취 학 아 동 수		
			이주민 자제	이주민 외 자제	계
수 원 군	安寧學校組合	670	40	8	48
	水原학교조합	300	35	241	276
	烏山학교조합	150	15	30	45
천 안 군	成歡학교조합	100	8	40	48
용 인 군	龍仁학교조합	60	20	10	30
	器興학교조합	25	25	—	25

5)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一) 水原郡』, 1929.

6) 東洋拓植株式會社, 『植民事業各地方別成績』, 1916, 120쪽.

수원학교조합은 전체 276명 가운데 35명이 동척 이민의 자제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다. 그러나 오산학교조합은 50%, 안녕학교조합은 90% 이상이 동척 이민의 자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무산아동을 위한 강습소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용주사의 절학교가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일제말기 미군 폭격기에 대한 염려로 대항교리 안릉국민학교 학생들이 용주사로 소개(疏開), 수용되어 수업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천보루를 비롯한 용주사에 피난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2) 수룡수리조합의 참여

원천저수지의 축조는 이미 1920년 신청을 하여 1927년 조합인가가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원군 태장면과 용인군 수지면 지역의 수리가 불량한 관계로 벼농사의 성적이 좋지 못하자 수원군수와 용인군수가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오던 중 1927년 8월 27일 지역 지주 2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수룡수리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수룡수리조합의 사업은 용인군 수지면 하리(下里) 마을 49호(현 이의동 아래 여수내)를 매수하여 이 땅을 저수지를 만들었다. 수룡수리조합의 물리면적은 819정보에서 748정보로 조정되었다. 총사업비는 506엔 189전이 소요되었다.⁷⁾ 물리구역은 수원군 태장면 매탄리·신리·망포리·원천리·권선리·기산리·진안리·반월리 및 안릉면 반정리·곡반정리, 그리고 용인군 수지면 하리, 기흥면 영덕리 등이었다.

수룡수리조합의 주요한 주주로 용주사 주지 강대련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대토지 소유자로서 용주사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수룡수리조합은 조합장·이사·서기 등의 임원으로 운영되었다. 조합장은 수원의 대표적 지주인 홍사훈(洪思勳)이었고, 설립자는 동산농사주식회사의 대표 나가야[中屋堯駿],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카토우[加藤俊平], 국무합명회사의 타니[谷義治]와 수원면 남수리 홍민섭(洪敏燮),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오덕영(吳惠泳)·오성선(吳性善), 그리고 용주사의 대표로 참여한 주지 강대련이었다. 이들은 당대 수원과 용인지역의 대표적 지주들이었던 셈이다. 용주사 역시 당대 대지주의 반열에 있었던 셈이다.

7) 京畿道, 「道地方費事業ノ概況」, 1929, 101~103쪽.

3) 용주사와 토지문제

용주사는 중창되면서부터 국가로부터 방대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정조의 중창 이래 왕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군·진위군 일대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899년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 따르면 당시 용주사는 총섭 1인, 소임승(所任僧) 30명이 있었다. 따라서 용주사는 적어도 31명 이상의 승려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용주사 위전(位田)은 53석락(石落), 위답(位畓) 49석 17두락, 불량전(佛糧田) 47석 6두락, 불량답(佛糧畓) 135석 5두 3승락(升落)이었다.

정조 당대 확보했던 토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조선후기까지 승려들에 의한 지속적 으로 불량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일합방 직전 용주사는 1910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0회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에 <광고>의 형식을 빌어 「경기도 진위군 각면 소재 수원 용주사 전답」 상황을 신고 있다.⁸⁾ 당시 진위군(현 평택시)의 일북면(一北面)·이북면(二北面)·일서면(一西面)·이서면(二西面)·이탄면(二炭面)·고두면(古頭面)·오타면(五朶面)·성남면(城南面)·여방면(余方面) 등에 소재한 용주사의 전답 상황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용주사의 재산규모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진위군 각 면에 소재한 용주사 전답 상황을 신문을 통해 광고한 것인지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 용주사 사유지(寺有地)가 관리 또는 승려들의 협잡에 의한 투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용주사 측이 기존의 사유지를 공공연하게 광고함으로써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당시 용주사 주지는 성용해(成龍海) 스님이었던 것 같다.

〈표 2〉 1930년대 용주사 토지 소유 현황⁹⁾

명 칭	所有地의 所在 및 面積(단위: 町)				所屬小 作人數	租法別比率(단위: 割)					
	郡名	畓	田	計		畓			田		
						定租	打租	執租	定租	打租	執租
신록사	여주군	18	12	30	92	5	5	—	10	—	—
용주사	수원군	8	2	10	17	10	—	—	10	—	—
	진위군	36	12	48	100	10	—	—	10	—	—
	소 계	44	14	58	117	—	—	—	—	—	—
봉은사	광주군	29	30	59	150	—	—	10	10	—	—

8) 「〈廣告〉京畿道 振威郡 各面 所在 水原 龍珠寺 田畓」,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28일~7월 31일, 8월 2일~8월 7일.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1985, 141쪽.

1936년 이전 용주사는 논 44정보와 밭 14정보의 규모에 소작인을 117명을 두고 있다. 소작인은 수원군의 17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진위군, 즉 지금의 평택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원과 안성·평택 등지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용주사는 인근 송산리·안녕리 일대에도 용주사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용주사 바로 앞의 땅은 용주사가 직접 직영하였다. 해방 직후 상황이지만 용주사는 자체 머슴이 3명 있었고 승려들의 울력으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적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4) 용주사와 승무

용주사 삼문 밖 우람하게 자란 나무들을 배경으로 청록파 시인 조지훈(趙芝薰; 1920~1968)의 「승무(僧舞)」 시비가 서 있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2004년 10월에 건립된 시비는 '승무'의 창작이 용주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조지훈이 19살 때인 1938년 가을 용주사에서 큰 재(齋)가 열려 승무 이외에도 불교전래의 고전음악이 베풀어진다는 소식을 거리에서 듣고는 곧바로 용주사로 내려왔다. 바로 남대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왔던 그는 이곳에서 이름 모를 승려의 승무를 보았다. 재(齋)가 파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절 뒷마당 감나무 아래서 뉘엿이 서 있었을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

천하의 명시 '승무'는 이렇게 용주사에서 시작되었다. 그 나이에 단지 승무를 보겠다고 남대문역에서 기차타고 수원을 지나 병점역에서 내려 용주사를 찾아왔을 젊은 시인의 남다른 열정이 예사롭지 않다.

그 당시는 일본이 만주를 넘어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던 중일전쟁 시기였고, 일제의 난폭한 민족말살정책이 작동되는 시기였으니 더욱 그러하다. 조지훈은 용주사 승무 이후 무용가 최승희의 승무와 이왕직의 아악 그리고 김은호 화백의 승무 그림까지 섭렵한 이후 시 「승무」를 완성하였다. 1939년 잡지 『문장(文章)』에 발표함으로써 조지훈의 등단추천 작품이 되었던 승무에 얹힌 그 열정과 고뇌에 찬 시작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1938년 가을 용주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살의 젊은 시인에게 감동을 준 그 행사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그러나 당시 1938년 용주사에서 행해졌던 큰 재

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승무와 불교전래 음악인 범패 등이 배풀어졌을 것은 조지훈의 언급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하튼 용주사의 대재(大齋)는 꽤 이름이 높아서 서울까지 알려질 정도였다면 특별한 행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 재가 열리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축제가 아닐 수 없을 터, 당시 인근 주민들도 용주사의 불교행사에 상당수가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월 초파일 행사도 중요했다. 일제강점기 사월 초파일은 인근 주민들이 용주사를 찾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는 것이 하나의 의례행사 같았다. 이에 스님들은 사월 초파일을 맞아 불교의 생로병사 등의 가르침을 연극으로 만들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장균은 박궁해(朴巨海) 스님이 범패로 유명한 용주사 승려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박궁해는 송산리 출신으로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박승룡 스님의 친형이다.

5) 일제강점기 용주사의 주요 인물들

정조 이래 용주사는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사세를 이어왔다. 한말 용주사 거주승의 규모는 1899년 당시 총섭승(總攝僧) 1명, 소임승(所任僧) 3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⁰⁾ 또한 1907년 국채보상의연금에 참여한 용주사 승려가 25명이었음을 보면 대략 용주사 거주승은 30명 안팎의 수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용주사 본말사와 관련하여 승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1917년 용주사의 법계(法階)를 기록한 자료는 용주사의 본말사의 승려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보면 대선사(大禪師) 강대련을 비롯하여 대교사(大教師) 5명, 선사(禪師) 8명, 대덕(大德) 3명, 중덕(中德) 26명, 대선(大禪) 44명으로 총 87명이었다.

또한 용주사 강원에서는 1917년 3월 30일 졸업식 및 수업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사교과(四教科) 졸업생 정덕수(鄭德洙)과 수료생 이경욱(李景郁)·강학준(姜學俊)·김성운(金晟潤)·손계조(孫啓照)·유성용(柳晟用)·이법륜(李法輪), 사집과(四集科) 졸업생 정도춘(鄭到春)과 수료생 김관일(金貫一)·양응찬(梁應燦)·김용성(金龍成)·김경진(金景眞)·장묘석(張妙碩), 사미과(沙彌科) 졸업생 이성관(李晟寬) 등 14명이었다.

당시 승려 교육의 차원에서 유학도 중요한데 경성으로 가는 국내 유학과 일본으로 가는 해외 유학이 있었다. 용주사의 해외 유학생으로는 용주사 법무였던 김정해(金鼎海)가 1913년 36세의 나이로 유학한 사실이다. 그는 일본 조동종 경성별원 포교사 테라다[寺田有全]의 소개로 1913년 일본 조동종대학(曹洞宗大學)에 유학을 갔으며, 용주사에

10) 「水原郡邑誌」 「寺刹」, 「龍珠寺」, 광무 3년 5월 (1899. 5).

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였다. 건봉사 이지광(李智光), 유점사 이혼성(李混惺)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의 유학생으로 1918년 여름 조동종대학을 졸업하였다.

1915년 서울에 중앙학림(中央學林)이 만들어지면서 용주사에서 파송된 승려로 고세묵(高世默)이 있었고,¹¹⁾ 1919년 당시 신상완(申尙玩)이 있었다. 이후 1923년 이갑득(李甲得)·손계조(孫啓照)·양응찬(梁應燦)·이성관(李晟寬) 등이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양영복(梁榮福)이 경성 부기학원, 권국빈(權國彬)이 석왕사 강당(釋王寺講堂), 강성인(姜性仁)이 일본대학(日本大學), 김양인(金陽仁)·윤성은(尹晟恩)·이상목(李相穆)이 동산강당(東山講堂)에서 수학하였다. 그리고 1924년 윤성은(중앙고등보통학교)·양재준(梁在俊)이 동산강당에서 수학하였다.

또한 1925년 한영석(韓英錫)이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윤성은이 법주사 강당(法住寺講堂), 최성복(崔晟福)·장덕인(張德仁)·장학원(張學遠)·김홍준(金洪俊)·심용안(沈龍眼)이 동산강당에서 수학하였다.¹²⁾ 또한 1929년 10월 12일 개운사 불교강원(開運寺佛教講院) 제2회 졸업식에서 용주사의 윤호순(尹豪淳)이 대교과, 그리고 안성 청룡사 김세진(金世震)이 사집과를 수료하고 있다.¹³⁾ 이후 혜화전문학교로 바뀐 1940년대 용주사 승려로 황성기(黃晟起)·박승룡(朴承龍)·홍종근(洪鍾根) 등이 유학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통도사·송광사·유점사·건봉사·범어사·석왕사·보현사 등 유수한 본산에서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유학생을 파견한 예에 비한다면 용주사는 유학생 파견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용주사를 언급할 때 주지였던 강대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1911년 「사찰령」 이후 용주사 초대 주지가 되어 1942년까지 32년간 주지를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강대련 사적비(용주사)

강대련(1895~1942)은 법명이 보영(寶英), 법호는 금허(錦虛)였으나 이후 대련(大蓮)으로 바꿨다. 1875년 9월 11일 경남 진주 비봉리에서 진주 강씨로 진사였던 아버지 주영과 어머니 곽부 공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6세 때 강원도 간성으로 이주하여 14세 되는 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이어 여의고 금강산 장안사에서 진허 묘준(震虛妙俊)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906년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명진학교를 1908년 제1회로 졸업했다. 당시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는 강대련을 비롯하여 한용운·이종욱·권상로·안진호 등이 있었다. 1908년

11) 中央學林修業式, 「彙報」, 「朝鮮佛教界」 제2호 (1916. 5), 91쪽.

12) 「本山住持再任就職認可申請に關する件」, 「學第」 1260호, 1927년 10월 26일(경기도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내는 보고서).

13) 「佛敎」 65(1929. 11), 「宗報」, 68쪽.

3월 6일 각도의 사찰대표 52명이 원흥사(元興寺)에서 총회를 열고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을 설립하고 이회광을 대종정, 김현암을 총무로 추대했을 때 김석웅과 더불어 서무 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중앙교계에서 불교중앙기관을 설치 및 1910년 각황교당을 설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1910년 가을 각황사 포교당 원주가 되었다가 사찰령 이후 1911년 11월 17일 용주사 초대 주지로 인가되었다. 이후 1942년 입적할 때까지 9회에 걸쳐 연임하면서 32년간 용주사 주지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1915년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였고, 중앙학림(中央學林)을 설립하여 근대적 교육기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9년 11월, 「조선불교기관확장의견서(朝鮮佛敎機關擴張意見書)」를 총독 이하 각 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친일적인 내용으로 비판받았다. 또한 1922년 3월 26일 불교개혁을 주장하는 불교청년회 계통의 젊은 승려들에 의해 조리돌림 당하는 명고축출(鳴鼓逐出)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1920년 이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주지로 지탄받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총독부 입장에서 불교발전을 고민함으로써 친일승려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1941년 12월 8일 강대련은 미·영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용주사 33개 본·말사에 적군항복기원(敵軍降伏祈願)을 봉행하라 지시하고, 각사 대표자 70여 명을 동원하여 이달 20일부터 연3일간 적군항복기원제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강대련은 이미 앞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래 본·말사 승려를 총동원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무운장구축원문(武運長久祝願文)을 불전에 봉독하는 한편 절 앞 광장에 '대동아 건설에 1억 민중은 정진불퇴(精進不退)'라고 조각한 보탑(寶塔)을 10여 개나 건립하였고 출정장병 위문금도 8차례에 걸쳐 3,700여원을 헌납하였다.¹⁴⁾

이렇듯 확신에 찬 친일을 하였던 그는 1942년 4월 1일(음 2월 16일) 입적하니 나이 68세요, 법랍 54세였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수원 용주사(龍珠寺)였다. 창강은 용주사 강대련(姜大蓮) 주지승에게 내가 이름 있는 화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단원이 그렸다는 불화를 모사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용주사 주지는 그 당시 총독부를 이웃집 다니듯 하던 정치 승(僧)이었다. 용주사에서 4~5일을 묵으면서 이 절의 후불(後佛)탱화·산신(山神)탱화·신중(神衆)탱화 등을 모두 모사했다.¹⁵⁾

그 자신도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월전 장우성(月田 張遇聖) 화백이 여주 이포의 석문사(釋文寺)를 창건한 창강 김영진(滄江 金榮鎭)의 요청으로 불화를 그렸다는 내용이다. 장우성조차 용주사 주지 강대련을 총독부를 이웃집 다니듯 하던 정치승으로 인식하고

14) 『毎日新報』 1941년 12월 28일.

15) 장우성, 『月田 회고록, 畫壇풍상七十年』, 미술문화, 2003, 56쪽.

있었다.

강대련 입적 이후 용주사 주지로 안성 청룡사 주지였던 송전계조(松田啓照), 즉 손계조(孫啓照)가 1942년 6월 24일 취직인가되었다. 이에 1942년 8월 25일 오전 11시 천보루에서 용주사 제11세 주지 진산식(晉山式)을 거행하였다.¹⁶⁾

손계조는 용주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마치고 1923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입학하여 1925년 12월 중퇴하였다. 1928년 8월 14일 오전 10시 천보루에서 용주사본말청년회(龍珠寺本末靑年會) 창립총회 당시 사회와 개회사를 낭독하는 등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929년 12월 26일부터 1938년 7월 21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칠장사(七長寺) 주지를 역임하였다. 또한 강대련의 뒤를 이어 1938년 9월 22일부터 안성군 서흥면 청룡사(靑龍寺) 주지를 역임하였고, 다시 강대련이 입적하자 본사 용주사 주지가 된 인물이다.

〈표 3〉 일제강점기 본사 용주사와 수반지 말사 역대 주지

구 분	龍珠寺	七長寺	靑龍寺	普光寺
1대	姜大蓮 1911. 11. 17	金瓊波	李龍虛	金應晟
2대	강대련 1914. 10. 22	김경파 1915. 5. 4	洪月運 1915. 4. 10	김응성 1915. 5. 4
3대	강대련 1917. 1. 22	김경파 1918. 4. 29	홍월운 1918. 4. 29	李應涉 1918. 4. 4
4대	강대련 1920. 11. 25	김경파 1921. 6. 17	李應涉 1921. 4. 29	金晶海 1920. 2. 18
5대	강대련 1923. 11. 20	김경파 1924. 6. 26	金雨潭 1924. 8. 16	金湖 1922. 11. 15
6대	강대련 1928. 1. 10	김경파 1927. 7. 13	김우담 1927. 9. 19	咸幻虛 1924. 2. 19
7대	강대련 1931. 1. 12	孫啓照 1929. 12. 26	李應涉 1930. 3. 10	鄭德化 1927. 8. 31
8대	강대련 1934. 1. 22	손계조 1932. 12. 26	이응섭 1933. 3. 22	정덕화 1930. 9. 26
9대	강대련 1937. 1. 25	손계조 1936. 3. 4	李春應 1934. 3. 12	池海雲 1932. 9. 2
10대	강대련 1940. 1. 27	金相鉉 1938. 9. 22	이준응 1937. 6. 10 姜大蓮 1938. 4. 11 孫啓照 1938. 9. 22	朴致龍 1934. 4. 24
11대	松田啓照(孫啓照) 1942. 6. 24	金寧相鉉(김상현) 1941. 10. 23	松田啓照(孫啓照) 1941. 10. 22	崔知梧 1936. 2. 19
12대	-	-	임무웅(林茂雄) 1943. 10. 11	최지오 1939. 2. 21
13대	-	-	-	大原觀海(최지오) 1942. 4. 20

윤호순(尹豪淳)은 1929년 10월 12일 개운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29년 12월 2일 수원포교당 포교사(포교당 원주 趙印海)로 부임하였다. 이는 손계조가 수원 포교당 포교사로 있다가 1929년 12월 칠장사 주지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용주사 총무로 활동하였고, 손계조 뒤를 이어 용주사 주지가 되었던 인물이다.

16) 『佛敎(신)』 41(1942. 10), 부록 『朝鮮佛敎曹溪宗報』 9, 17쪽.

용주사 본말사 승려 가운데 일제강점기 주요하게 활동을 하는 인물로 대교사 이철허(李徹虛)는 30본산 가운데 전북 보석사(寶石寺) 주지로 활동하였고, 일본 조동종대학을 유학하고 돌아온 김정해(金鼎海)는 이후 본산 강화 전등사(傳燈寺) 주지를 역임하였다.

또한 신상완(申尙玩)은 3·1운동 당시 중앙학림의 학생으로 만해 한용운과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던 인물로 이후 상해임시정부에 관여하였다.

또한 용주사를 움직였던 직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제강점기 용주사 직원현황

구 분	1914년 5월	1926년 8월	1929년 11월	1930년 1월	1936년 1월	1938년 1월	1943년 1월
住持	姜大蓮	강대련	강대련	강대련	강대련	강대련	松田啓照
監務	金雨潭	李震海	이진해	김우담	崔觀海	金曼藕	松園淳道
監事	朴道庵 朴錦潭	白鏡海	백경해	尹晟恩	尹一藕	윤일우	金森健次
法務	李徹虛	李景郁	李範海	姜壽遠	金圓海	金圓海	姜本秀雄
書記	白鏡海 金應鍾	-	-	-	朴巨海	金晟珠 박궁해	-
布教師	李徹虛		孫啓照	尹豪淳	林無鏡	林曼荷	-
講師	-	-	-	-	-	-	靑山金谷

1943년 창씨개명으로 나타나는 송원순도(松園淳道)는 윤호순으로 볼 수 있으며, 김삼건차(金森健次)는 김복기, 그리고 강본수웅(姜本秀雄)은 박승룡이 아닌가 추정된다.

(4) 해방 이후 용주사

1) 불교전문 정종학림

이봉균(李鳳均, 1932년생)은 여주 점동리 출신으로 어린시절 수원으로 이주하여 신흥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겨울 15살의 나이로 용주사에 들어왔다.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가 고향인 아버지 이현옥(李現玉)은 범명이 동엽(東曄)으로 박영조(朴永祚)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박영조는 박궁해·박승룡의 아버지로 1928~1934년까지 용인군 원삼면 극락사(極樂寺) 주지를 역임하고 이후 1936년부터 수원을 봉녕사(奉寧寺) 주지를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이동엽은 이후 안성 칠장사 및 청룡사에서 공부하고 해방 후 용인 원삼면 극락사, 평택군 청북면 약사사, 수원군 반월면 수리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봉균은 신평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용주사로 출가하였던 것이다. 당시 용주사에는 ‘불교전문 정종학림(正宗學林)’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강사는 용주사 조실 스님이던 조홍준(曹弘俊)이었다.

이봉균은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게 되는데 법명은 장균(長均)이었다. 은사는 당시 용주사 주지였던 손계조(孫啓照)였고, 계사는 용주사 조실이었던 조홍준이었다. 손계조 주지 당시 용주사 직원은 감무 윤호순, 감사 김복기, 서기 김성만, 노전 한득순, 조실 조홍준이었다.

당시 용주사 전문강원인 정종학림에서 수학하던 강원생들은 정돈규·오경환·김성문·노해수 등 1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봉균이 강원에서 공부할 당시 사미과는 대상자가 없었고, 사집과에는 최성룡(崔成龍)·최종언(법명 長彦)·허찬(법명 長欽)·이봉균(법명 長均) 등 4명, 사교과에는 경북 영천 은해사 출신의 노해수(盧海壽)가 있었고, 대교과에는 정돈규(법명 晟來)·김용태(법명 晟間)·김계원·김영기(金永基, 법명 長禪) 등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정돈규는 안성 금광면 출신으로 안성 칠장사 주지 김경파(金瓊波)로부터 득도하였다.

최성룡은 안성 출신으로 한득순(韓得順)의 상좌였다. 강화도 출신인 한득순은 당시 용주사 노전을 보았고, 이후 수거리 흥법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1970년대에는 화성군 봉담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화성 동탄 출신인 최종언은 박승룡의 셋째 상좌였다. 또한 허상·허찬 형제는 해방 후 만의사 주지였던 아버지 허관석(許寬石)의 소개로 용주사에서 출가하였다. 허상(법명 晟相)은 허찬의 10살 쯤 위의 형으로 일본사관학교를 나왔다고 알려진 이진호 스님에게 득도하였다. 당시 용주사를 호령하였던 주지 강대련은 이진호 스님을 그와 대적할 상대로 견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용주사의 실세였던 대련 문도들로부터 그가 배척당하게 되었고, 이에 허상은 만주로 가서 경찰이 되어 경부까지 되었다고 한다. 한때 경찰이 된 허상이 허리에 칼을 차고 용주사를 찾아왔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안성 칠장사 주지였던 김경파의 아들 김창섭도 용주사로 출가하여 공부하였다. 이후 군대에 입문하여 중위로 제대하였다.

정돈규는 소령으로 예편하여 태안읍장을 역임하였고, 특무대 중령 출신인 오경환과 화산학교 교사가 되었던 김성문(金晟間), 당시 대구 은해사 출신이었던 노해수는 이후 법화종 종정을 지냈다고 한다. 대한불교 법화종은 1946년 5월 헤일정각(慧日正覺)이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義天)을 종조로 삼아 서울시 성북동에 무량사(無量寺)를 세우고 1969년 4월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 등록을 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여 “해동신라의 원효성사가 경찬(敬讚)하신 묘법(妙法)의 현의(玄義)와 고려의 제관법사(諦觀法師)가 홍전(弘傳)하신 법화의 가르침을

계승함”을 종지로 삼는다.

용주사의 인적구성에서 주요한 세력은 강원도 고성 출신들이다. 32년간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이 강원도 고성이 고향이었던 인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黃晟起)·황종근(黃鍾根)·최용환 등이 강원도 고성 출신이었다. 또한 곽도진(郭道眞)은 법명이 장우(長佑)로 황성기의 상좌였는데, 역시 강원도 고성 출신이다.

황성기는 1941년 혜화전문학교에 용주사 공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943년 9월 25일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원래 1944년 3월 졸업 예정이었으나 일제의 학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이나 일찍 졸업시켰던 것이다. 11월 20일 학병 지원 마감을 넘기기 위해 최재형(동경 구택대학 졸)·서성인(동양대학)·김성일(대정대학), 혜전 동기들인 황성기를 비롯한 박설산·이인성·조승원·이재복·이원섭·한웅국 등 17~18명이 한 동안 학병을 피하기 위해 용주사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황성기의 노력 때문이었다.

용주사의 또 다른 축은 안성 출신들이다. 정돈규는 안성출신으로 칠장사 주지 김경파를 은사로 득도하여 용주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이수하였다.

안성출신으로 문헌식은 용주사에서 초발심자경까지 읽고, 용주사에서 보내준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 미국유학을 다녀와 목사가 되었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이후 기독교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특이하게도 해방 직후 용주사 승려들의 정치적 색채는 대부분 우익이었다. 혜전을 나오고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장수 역시 안성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익적 색채를 지녔던 인물이었는데 이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2) 용주사 승려와 족청 중앙훈련소

해방 후 1946년 9월 용주사에서 시국강연이 열리는 상황이었고,¹⁷⁾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대한 희망과 참여에 대한 승려들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당시 수원의 족청 중앙훈련소에는 용주사 스님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었다. 새로운 세상에 스님들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훈련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제일 먼저 장순(長琿) 스님, 즉 황종근이 먼저 다니면서 이후 뜻을 같이하는 승려들을 끌어들이었다. 이에 정돈규·김성문·노해수 등의 순서로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족청을 탄압하면서 걷어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1948년 이후의 상황으로 보인다.

해방 후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중앙훈련소가 수원에 있었다. 조선민족청년단은 약칭 ‘족청(族靑)’으로 통칭되었는데 족청 중앙훈련소는 지금의 원호원 자리이다. 일제시대 육군병원을 지으려고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다가 해방으로 인해 진척되지

17) 『大東新聞』 1946년 9월 14일.

못했던 것을 족청이 미군정의 도움을 얻어 중앙훈련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조선민족청년단은 1946년 10월 9일 이범석(李範奭)을 단장으로 조직된 청년운동 단체였다. 민족정신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 나라의 역군으로 청년들을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결성에 참여한 인사는 단장에 이범석, 부단장에 안호상, 전국 위원에 김관식·김활란·이철원·현상윤 외 33명, 상무이사에 설인 외 4명, 그리고 이 사에는 백낙준·최규동 외 10명 등이다.

청년단이 내세운 단시(團是)는 ①민족정신을 환기하여 민족지상·국가지상의 이념 하에 청년의 사명을 다할 것, ②종파를 초월하여 대내자립·대외공존의 정신으로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것, ③현실을 직시하고 원대한 곳을 바라보며 비근한 것부터 착수하여 전국도상의 청년다운 순감(純感)을 바칠 것 등이다.

수원에 있는 족청 중앙훈련소는 총면적 7만여 평에 건평 4천여 평의 규모였다. 이에 1946년 12월 2일 제1기 훈련생 200여 명에 대한 입소식이 거행되어 1개월간 합숙훈련이 시작되었다. 1기생의 경우 한 방에 14명씩 미군침대를 사용하였고 교과시간은 145시간이 배정되었다. 이들의 학력은 중학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전문대학도 20여 명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었다.

훈련은 주로 정신·생활·지능·체육 훈련 등으로 대별하였다. 정신훈련은 민족지상·국가지상으로 자력·자강·자주의 민족적 국가적인 인생관을 확립시킴으로써 반민족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생활훈련은 일상생활의 합리화·성실화 등의 원칙하에 규율을 지키며 창조적인 생활과 더불어 자물(自物)·자각(自覺)·자성(自省)의 생활의욕을 향상시키며, 지능훈련은 각종의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탐구를 위하여 각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체육훈련은 체력을 향상시켜 용기를 가지게 하고 기개를 올리며 집단행동의 규율을 체득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당시 교수는 정인보를 비롯하여 저명한 인사들과 서울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민족지상·국가지상의 최고이념의 체계화와 일반 지능의 능률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1948년 하기 훈련에는 훈련생의 규모가 늘어나 남자 4백 명, 여자 2백 명 등 모두 6백 명의 훈련수료생을 배출할 정도였다.

훈련생들은 출신 및 거주 지역으로 파견되어 하부조직을 결성·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조직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창립 당시 300명에 불과하던 것이 9개월 후에는 20만 명, 2년 후에는 120만 명의 단원을 거느리는 대조직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조직이 확대되자 정계와 사회 일부에서는 족청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경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족청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1948년 12월 19일 통합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을 조직하도록 한 후 족청을 이에 합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은 이승

만의 이와 같은 지시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끝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족청을 해산하였다. 이에 족청은 창단 2년여 만인 1949년 1월 15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 해체되었다.

해방 공간에서 젊은 승려들의 건국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족청 중앙훈련소가 수원에 개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던 셈이다.

3) 용주사와 한국전쟁

해방 후 대처승으로 사하촌이라 할 수 있는 송산리·안녕리에 살고 있었던 승려들은 윤호순·김복기·박승룡·조재두·유계득 등이 송산리에 살았고, 강대련의 아들 강석희가 안녕리에 살았다.

손계조는 눈썹이 길게 나온 것이 영락없는 호상(虎相)으로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강렬한 눈빛은 그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 숙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

윤호순 주지 당시 용주사는 감무는 없었고, 감사 김복기, 법무 박승룡, 서기 김성만(金晟曼)이었다. 이후 김성만은 고아원 부원장이었고, 이봉균은 총무 겸 물자를 보았다.

윤호순 주지 당시 감사(監事)였던 김성주(金晟珠)는 속명이 김복기(金福基)로 송산리에 살았다. 김복기는 손계조의 상좌였다. 이미 1937~1938년 용주사 서기를 역임했던 그는 결혼하여 3남매(준영·준호·풍자)를 두었다. 대한청년단 사무실이 안녕리 방죽 끝에 있을 당시 대한청년단장과 소방대 대장을 맡는 등 우익청년단을 대표하였던 인물이었다. 이에 좌익청년단에서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전쟁이 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잠적하였다. 그러나 좌익들의 집요한 추궁에 장모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줘서 납치되어 세마대에서 학살당하였다고 한다.

김복기의 만상좌는 김영기(법명 長禪)이고, 둘째 상좌가 이봉균(법명 長均)이었다. 당시 법무는 박승룡(朴承龍)이었다. 법명은 성후(晟厚)인데 속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박승룡은 용주사가 있는 안룡면 송산리 출신으로 범패로 이름이 높았던 용주사 승려 박궁해(朴巨海)가 친형이고, 아버지 또한 용인 극락사 및 해방 후 수원 봉녕사 주지를 역임하였던 박영조(朴永祚)였다. 박승룡은 해화전문 출신으로 당시 용주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박승룡의 상좌로는 강원도 고성 출신인 곽장희(郭長禧)가 만상좌이다. 그는 곽장우의 형이고 황성기의 생질이다. 둘째 상좌는 장수영(張守榮)으로 대부도 옆의 섬 출신이다. 사집과까지 공부하고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최종언(법명 長彦)이 박승룡의 셋째 상좌였다.

용주사의 대처승들은 송산리 및 안녕리에 거주하면서 우익의 입장에 서 있었다.

손계조는 한독당 화성군당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윤호순은 화성군 교육위원회 부위

원장, 박승룡은 태안농협장·화성군 농협 감사·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정조의 명에 의해 중창된 용주사는 정조 이후 왕실의 절대적 지원을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국찰(國祿)의 위상을 지녔다. 따라서 용주사는 송유역불의 조선시대 일반 사찰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는 용주사 승려들이 지녔던 위상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과 용주사 승려들과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주사 승려들은 이 지역의 지식인으로써 여론을 주도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안룡성인학교의 계획위원으로 윤호순·박승룡·박용근·이은성 등이 있었다. 승려 출신인 윤호순·박승룡 등은 이 지역의 유지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김성문(金晟問)은 속명이 김용태로서 부인 윤길순과 더불어 화산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용주사 승려들 자체는 좌우익 갈등이 없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가 지닌 보수성에 기초하여 우익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7월 10일 경 들어온 인민군은 한 동안 용주사 대웅전을 군사령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대는 모두 용주사 옆 잔솔밭 야산에 진지를 만들고 숙영했기 때문에 인민군들의 모습은 마을사람들에게 잘 띄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안룡면 내무서 사무실이 안녕리 뒷동산 밤나무 숲속 구 이왕직 사무실 건물을 사용하였다. 그곳은 공원처럼 넓은 마당이 있었고, 건물 옆에는 2개의 동굴형 방공호가 있었는데, 우익인사들을 가두는 유치장으로 활용되었다. 이때 용주사의 법무 윤호순도 한때 갇혔다.

개전초기 용주사와 용건릉 사이 깊은 숲속에 지하 방공호를 구축하고 요새화하였다. 그러나 차츰 전세가 불리해지고 의용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용주사에 집결하여 전투훈련을 받았던 것 같다. 용주사 앞 잔솔밭 야산에는 연습용 목총과 모의 수류탄 등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한국전쟁 때 용주사 승려들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김복기는 우익으로 낙인 찍혀 좌익으로부터 죽미령에서 학살당하고, 박승룡의 상좌였던 장수영과 남양 봉림사 주지였던 이경옥(李景郁)의 아들 이봉진(李鵬振)도 행방불명되었다.

이장균을 비롯한 안녕리 일대의 청년들은 제2국민군으로 소집되어 청도까지 걸어갔다 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굶주림과 동상 등의 악조건을 견디며 그곳까지 걸어갔다 왔다는 것을 마치 이웃마을 갔다 온 듯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시대의 아픔이 아련히 전해온다.

4) 안녕리 사회주의 운동의 연원

안녕리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김만석(金萬石)과 백봉흠(白奉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안룡공립학교 동창생들이었다. 김만석은 1914년 11월 15일 경성에서 출생하여 아버지를 따라 한때 경기도 포천군으로 옮겨 살았다가 후에 수원군 안룡면으로 이주하였다. 1924년 안룡공립보통학교 제2학년에 입학하여 동교 제4학년 수업 후 6년제인 오산공립보통학교로 전교하여 1928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모리모토[森本]상점, 마장(馬場)정미소, 김선규(金善奎)상점 등 미곡상의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백봉흠은 1929년 오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1931년 4월경 보통학교 동창생 김만석과 교유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였다. 1933년 2월 이래 김만석과 통하여 이미 수배중인 김형선(金炯善; 당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결석 공판 중)과 연결되어 활동하였던 것 같다. 이에 1933년 5월 메이데이 격문 사건을 김만석과 더불어 주도하였다.

실제 안녕리의 운동의 핵심은 백봉흠이었다. 같은 마을의 성후영(成後永)·윤성복(尹聖福) 등과 함께 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조직 책임은 백봉흠으로 성후영과 윤성복이 보조하면서 회비를 징수하여 잡지를 구독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매달 5~6회 회합을 통해 조합원을 지도 훈련하였다. 농민조합 결성이 이후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안녕리 사회주의 운동의 주력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일제강점기 백용흠·백명흠·백봉흠 등 이들 형제는 반일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다. 특히 4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백봉흠은 해방 후 세교리 원제환(元濟煥), 양산리 문용배(文龍培) 등과 더불어 이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1950년 9·28 수복 이후 체포되어 수원역에서 기차로 실려 대구에서 200여 명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이러한 전쟁과 학살의 와중이던 1951년 어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용주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은 곽영주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용주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물었을 때 용주사에서는 국보사찰인 용주사가 사찰 임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용주사 뒷산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용주사 법당 뒤 현재 중앙선원이 있는 곳은 구 왕실(이왕직) 재산이었다고 한다. 이에 용주사는 구 왕실 땅이라는 대답을 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경무대로 올려 보내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기 김성만(金晟曼)과 이장균이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다. 김성만이 쓴 것을 최종적으로 이장균이 정서하여 경무대로 올려 보내서 용주사 뒤쪽의 산판을 용주사 땅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용주사 서기였던 김성만은 숙명이 김창호로 이후 동국대 총장이었던 백성욱이 동국

대로 불러 교무처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

용주사는 도총섭이 있었던 능침 수호사찰이었기 때문에 승군이 수장하였던 수십 개의 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후 인근의 좌·우의 청년들이 무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칼들을 반출하였다고 한다.

5) 대처분쟁과 대련 문도의 몰락

해방이 되고 나서 용주사 주지는 1942년 이래 주지였던 손계조였다. 이후 손계조의 뒤를 이어 윤호순이 주지가 되었다.

윤호순 주지 당시 비구-대처 분규가 일어나면서 잠시 한월해(韓月海)가 주지를 맡았다고 한다. 이는 대처 측 승려들이 비구 측 승려들의 요구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당시 노전(爐殿)을 맡았던 비구승 한월해 스님을 주지로 앉힌 것이다. 월해스님은 몇 달간 주지직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이후 대처승이었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한 안성 포교당의 조만해(趙萬海)가 비구 측과 손을 잡고 용주사 주지가 되었다. 조만해는 강대련의 상좌였지만 문도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지 않았다고 한다. 성격이 괴팍하고 소위 튀는 스타일로 돌출행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구 측의 편에서 주지가 되었던 조만해 역시 용주사 주지를 오래 하지 못하였다. 이후 용주사는 비구-대처 분규 이후 1955년 전관응(全觀應)이 용주사 주지가 됨으로써 비구승에 의한 용주사의 장악이 완성되었다. 이후 용주사에 한국 최초의 역경원(譯經院)이 개설됨으로써 중요한 역경사업의 첫 장을 장식하였다. 이는 이후 1965년 용주사에 번역장을 개설하여 『한글대장경』 제1집을 간행하였다. 1964년 운허(耘虛)스님과 총무원장 청담(靑潭)스님, 동국대 총장 김법린(金法麟) 등이 상의하여 동국대에 역경원을 설치하였다. 이에 종단사업으로 대장경 번역 사업이 개시되었고, 운허스님이 역경원장이 되었다. 이에 이듬해 용주사에 번역장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용주사 주지직을 윤호순에게 물려준 손계조는 수원 남수리에 있는 수원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대처분규에 따라 수원포교당에 있기도 어려워져서 수원시내 수원소방서 아래쪽에 땅을 사서 대련사(大蓮寺)라는 절을 만들어 독립하였다. 대련사는



한월해

강대련 스님의 법명을 딴 절인 셈이다. 손계조 뒤를 이어 용주사 주지가 되었던 윤호순도 대처분규로 용주사와 인연을 접어야 했다. 그는 용주 자혜원 운영으로 활로를 개척하였다.

6) 고아원 - 용주 자혜원

전쟁 와중에 수원 인근의 고아원이 용주사에 수용되었다. 용주 자혜원(龍珠慈惠院)을 비롯하여 천일고아원·한일고아원·원불교 보화원 등 8개 고아원이 연합 수용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고아들은 대웅보전의 큰 법당을 제외하고 방마다 고아들이 가득 차서 용주사 전체가 고아원이다시피 했다. 당시 수용 아동 수는 600~700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8개 연합고아원 총책임자는 삼일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던 김병호(金炳浩)였다. 고아원의 운영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구호미(救護米)와 분유(粉乳), 그리고 수원비행장의 51비행단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합고아원의 운영은 근 1년 정도 유지되었다.

이후 용주 자혜원 소속의 고아들은 만수리실과 나유타로의 큰방에 남녀로 분리 수용되었다고 한다. 오른쪽 나유타로 큰방이 남자, 왼쪽 만수리실 큰방이 여자들로 나뉘었는데, 유아부·유년부·소년부 등으로 구성되었고 인원은 약 300명 정도였다.



용주사 고아원 아이들
(나이에 따라 두 종류의 옷을 단체로 맞춰 입은 모습)



고아원의 쌍둥이 형제

용주 자혜원 원장은 당시 주지였던 윤호순이었다. 그러나 대처 분규가 일어나면서 용주 자혜원은 용주사 밖 오른쪽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겼다. 이때 원장은 윤호순의 둘째

딸인 윤영환(尹映桓)이 되었다.

수원 팔달산 아래 매산학교 앞쪽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찰인 서본원사(西本願寺)가 있었다. 해방 후 적산가옥이 된 이 서본원사를 윤호순이 인수하여 용주 자혜원 분원을 설치하였다. 지금은 연립주택이 되었다.



용주자혜원 수원 분원(뒷줄 가운데 윤호순 스님)

1955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용주사에서는 수원을 비롯하여 화성군 일대에서 불교신도 다수 참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식전이 거행되었다. 이때 식전에 이어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등 다채로운 유흥회도 있었다.¹⁸⁾ 용주 자혜원 어린이들의 재롱잔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끝나고 전염병과 더불어 고아들을 괴롭힌 것은 부스럼병 등의 각종 질병이다. 특히 머리 기계독은 당시 짧은 머리 사이에 촘촘히 부스럼을 만들어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받곤 하였다. 이때 용주 자혜원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용화의원 이세겸 선생이 있다.

7) 용화의원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한국의 농촌 현실은 참담했다. 농촌 인구의 70% 이상이 소작농으로 절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문맹률도 그 정도 이상이였다. 안령리와 송산리 지역은 동척과 이왕직 및 용주사의 소작농이었다.

18) 「人山人海의 龍珠寺 - 釋尊誕日行事盛大-」, 『경인일보』 1955년 6월 1일.

또한 불결한 위생상태와 영양실조로 전염병과 결핵 등 질환이 만연되어 있었으나 의료시설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농민들은 병이 나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다. 해방 후 미군정청 후생부의 통계도 전국의 의사는 3,000명 정도였으며 이들도 대부분 서울과 부산·대구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으로 남아 있었다.

해방 당시 수원에는 도립병원에 의사 3~4명과 개인적으로 개원한 의사 10여 명이 있었지만 수원군 기타 지역은 한지의사(限地醫師) 등이 있었을 뿐이다.

안릉면도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었는데 다행히 안녕리에 1947년부터 1958년까지 이세겸(李世謙) 선생이 개인의원인 용화의원(龍華醫院)을 개설하여 시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용화의원으로 명명한 것도 미륵의 용화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상 38선을 넘어 월남한 그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안녕리에 정착하게 된 것도 용주사와 맺은 인연이라고 한다. 이세겸 선생이 경성의전을 다닐 당시 용주사에 와서 주지 강대련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주 찾았다고 한다. 강대련은 친일주지로 이름이 높았지만 승려로서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예불을 거르는 일도 없었고 염불소리도 좋았으며 용주사를 여법하게 정돈하여 모범적인 사찰 경영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불교사가로 일컬어지는 퇴耕 권상로(退耕 權相老)는 강대련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1879년생인 권상로는 강대련보다 4살 연하로 항상 강대련 스님을 '형님'으로 부르는 사이로 매년 정월 초3일에는 반드시 용주사에 와서 불공을 드릴 정도였다. 즉 주지 강대련은 매년 정월 초하루에는 대웅전의 부처님께 전 대중이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올리게 하고는 3일에는 칠성마지를 역시 같은 규모로 올리는 데 이때 권상로는 한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는 1941년 강대련이 열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¹⁹⁾

19) 黃晨起, 「退耕 權相老 老師를 追慕함」, 『佛敎思想의 本質과 韓國佛敎의 諸問題』, 保林社, 1989, 226~236쪽.